

하늘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Arts Center

May+June 5+6

2012 vol.30





B-BOY 버스트 갬블러즈 **BUST GAMBLERZ**

CLUB DJ DJ POLE | DJ Michael



A!SSA
CLUB

2012.5.5 PM 10>>1
안산 25시광장

CONTENTS



- 8 **ASAC ESSAY**
포도에세이
- 10 **ASAC PEOPLE**
연극 공리-강학수(장영실役)/이원희(세종役)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황혜민
- 18 **문화진단**
일본 지역 공공극장과 '극장법' 논란
- 22 **ASAC FOCUS**
왜 거리예술인가?
- 26 **ASAC 특집**
2012안산국제거리극 축제
- 38 **ASAC STAGE**
음악극_병사이야기
연극_공리
연극_춘천거기
오픈스페이스_뮤지컬 캐쉬
연극_노이즈오프
- 48 **ASAC PLAY**
무대야놀자

하늘다리

2012년 05+06월 호 (통권 제 30호)

발행인 김철민 편집인 김인숙

발행처 안산문화예술의전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31-481-4047 팩스 031-481-4021

기획 문화홍보부 편집디자인 인쇄 (주)반디컴 02-2272-1190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의지입니다



10

50 **대관공연**
5~6월 주요 대관공연

52 **대관전시**
5~6월 주요 대관전시

54 **CULTURE TREND**
테마가 있는 미술 _ 그림 속 신화이야기
연극, 그 중독적 매력에 빠져들다!
즐거운 클래식, 시대를 읽다

66 **문화家탐방**
수암리사람들

70 **동아리 탐방**
강서고등학교-연극반

74 **전당뉴스**



26



48

5 MAY 2012

무대안전점검
 기획공연
 대관공연
 대관전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암리 사람들 (5.1~7) ■ 박상현작품전 (5.1~3) 	2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이야기 15:00
6	7	8	9	10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사이야기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야 놀자 11:00 ■ 제9회 안산국제 아트페어 AIAF (5.1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야 놀자 11:00 ■ 컬투쇼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투쇼 16:00 / 20:00
13	14	15	16	17	18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합창단 제41회 정기연주회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 공동제작 '궁리'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 공동제작 '궁리' 15:00
20	21	22	23	24	25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극단 공동제작 '궁리' 1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니밴드 singsingsing! 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침음악살롱 춘천거기 11:00 /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오울자, 백남 무용단 19:00 ■ 춘천거기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김영일 소리 40주년 유작공연 15:00/18:30 ■ 하늘사랑양심불 창단기념콘서트 17:00 ■ 춘천거기 15:00 / 19:00 ■ 제2회 대한민국 안중근 의사 서예대전(5.26-28)
27	28	29	30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페스티벌 14:00 ■ 푸른청소년오케스 트라 정기연주회 19:00 ■ 춘천거기 14:00 /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미오와 줄리엣 10:00 / 1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미오와 줄리엣 10:00 / 13:30 		

6 JUNY 2012

무대안전점검 기획공연 대관공연 대관전시

SUN	MON	TUE	WED	THU	FRI	SAT
	■ 무대점검				1 ■ 2012안산시청소년 종합예술제 09:00 ■ 정신건강연극제 '뽕짝' 19:00 ■ 제11회 대한민국 국제기로미술대전 (6.1~6)	2 ■ 2012안산시청소년 종합예술제 09:00
3 ■ 제2회 전국 다문화 가족 합창대회 14:00	■ 무대점검	5	6 ■ 오즈의마법사 11:00/14:00/16:00	7 ■ 명혜학교 30주년 기념식 14:00 ■ 제9회 아르보전 (6.7~11)	8	9 ■ 알라딘 11:00/14:00/16:00 ■ 공연탐험대-어린이 클래식 14:00
10 ■ 알라딘 11:00/14:00/16:00	■ 무대점검	12	13 ■ 안산문화협회 창립 전시회 (6.13~19)	14 ■ 무대야 놀자 11:00 ■ 뮤지컬 캐쉬 20:00	15 ■ 무대야 놀자 11:00 ■ 뮤지컬 캐쉬 20:00	16 ■ 뮤지컬 캐쉬 15:00 / 19:00
17 ■ 뮤지컬 캐쉬 15:00	■ 무대점검	19 ■ 로미오와줄리엣 09:30,11,13:30 ■ 시립국악단 오리엔탈 하모니 19:30	20 ■ 로미오와줄리엣 09:30,11,13:30	21 ■ 로미오와줄리엣 09:30,11,13:30	22 ■ 로미오와줄리엣 09:30,11,13:30	23 ■ 재밋는 오케스트라 14:00 ■ 노이즈오프 15:00 / 19:00
24 ■ 노이즈오프 14:00 / 16:00	■ 무대점검	26	27	28 ■ 경기도청 경기도 공예품전 (6.28~30)	29 ■ 제5회 안산성가 합창제 19:00	30 ■ 어린이캐츠 11:00/14:00/16:00

Photo Essay

난 알고 있었지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가졌고
푸른 사람들은 푸른 꿈을 지니고

난 알고 있었지
꿈을 향해 걷는 사람들은 깊은 마음으로
매서운 계절을 이겨낸 꽃같은 기억들을 지니고

그래 저 꽃이 필 때는
세찬 비바람 견디어내고
하늘보며 별빛을 보며
그날을 기다렸겠지
언젠가 그 기억들 세상에 말하리라
그래서 꽃은 피는 것이겠지.

-홍광일의 시 <저 꽃이 필 때는> -





연극 궁리-강학수(장영실役)/이원희(세종役)

너와 나의 존재를

(장영실)

(세종)

‘궁리’ 하라



‘문화 게릴라’ 이윤택이 10년 만에 내놓은 창작품 〈궁리〉로 안산을 찾아온다. 궁리는 안산문예당이 우수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 시키고자 국립극단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 고양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협력 프로젝트다. 세종의 총애를 받던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일순간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건을 다루는 이 작품은 장영실과 세종을 통해 신분을 넘어선 우정, 우정과 왕권 수호 사이에 갈등하는 권력, 그 속에서 꽃핀 과학적 성과가 생생히 녹아있다. ‘완성도 높은 연극’으로 안산 관객을 만나기 위해 땀 흘리고 있는 장영실(강학수)과 세종(이원희)역을 두 배우를 국립극단에서 만났다.

INTERVIEW

판을 넓히다 - 강학수(장영실 역)

이번 작품 출연진은 두 세 명의 주요 배역 외에 모두 오디션으로 뽑았다고 들었다. 연출가 이윤택과는 몇 번째 작품인가?

첫 번째 작품이다.

정말인가?

이윤택 연출가를 궁리 오디션 때 처음 봤다. 카리스마가 장난이 아니더라!(웃음)

이윤택 연출의 창작품이 무대에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던 차에 오디션 소식을 들었다. 그의 작품은 주요 배역 외에 코러스 역할과 우리나라 전통의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코러스는 단순히 '병풍'이 아니라 배경이 되고, 도구가 된다. 코러스의 역할이 주요 배역을 빛나게 한다. 또한, 우리 춤과 음악, 한과 신명이 들어있다. 이런 요소가 나에게 힘을 줬다.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20여 년 동안 풍물과 마당극을 한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오디션에 지원했다. 뭐라도 좋았다. 출연한 시켜준다면 뭐든지 다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데 장영실로 캐스팅됐다는 말인가?

그러게 말이다. 사실은 처음부터 장영실로 낙점된 것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장영실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같이 수감하는 '감방 동료 최효남' 역이었다. 최효남은 장영실과의 대화를 통해 그가 왜 감옥에 오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이다. 장영실 역의 더블 캐스팅이 있을 거란 말이 들렸을 때도 내 머릿속은 온통 '최효남 생각' 뿐이었다. 내가 더블 캐스팅의 수혜자가 내가 될 거란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장영실로 캐스팅이 확정된 후 가족에게 알렸더니 '그 점괘가 맞는 구면!'하고 좋아하셨다. 나이 마흔의 아들이 춤과 풍물에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까웠는지 어머니가 점을 본 모양이다. 그 점괘에는 내가 '마흔부터 이름을 알린다.'고 하더라. 하하하



그 역술인 '죽집계'네(웃음) 그렇다면 연기는 언제부터 했나? 마당극에서도 연기가 필요한가?

2008년 서울문화재단에서 전통연희부문 신진 예술가로 선정됐다. 재단 지원금으로 공연을 했는데 그때 연기의 필요성을 절감 했다. 그 전에 마당극에서 '대사'를 하기도 했지만, 서사극에서의 '연기'와는 다른 차원이었다. 작년에 공연한 1인극 '학수고대'는 그래서 의미 있다. 1시간 30분 동안 1인극을 하면서 연기가 주는 맛을 알았다. 춤과 연기를 접목했더니 춤을 잘 모르는 사람도 남사당 여섯 마당이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다고 했다. '학수고대' '꽃상여'를 공연하면서 느낀 것은 춤과 연기가 만나면 더 좋은 '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춤과 연극은 표현 양식이 다를 뿐 그 꼭짓점은 같다. 내 감정만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 그리고 결국은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것.

연기에 입문한 계기는 필연이었음을 알겠다. 그러면 풍물은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었나?

중학교 1학년에 클래식 기타를 선물 받았다. 의욕에 넘쳐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 문제는 내가 왼손잡이라는 것. 동아리 선배가 왼손잡이에 맞게 줄의 순서를 모두 바꿔 놨다. 화집에 동아리 방을 나와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는데 풍물 소리가 들렸다. 북을 만지고 있는 선배에게 좀 전의 일을 고자질하듯 이야기 했다. 그리고 '풍물은 왼손잡이 여도 줄을 바꾸지 않느냐?'고 물었다. '왼손잡이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리고 줄을 이빨로 뜯어 먹어도 된다.'고 했다. 당장 그날로 풍물 반에 가입했다.

장영실을 연기하면서 연출가에게 주문 받은 특별한 것이 있다면 무언인가?

더블캐스팅 된 다른 장영실을 보라고 했다. 그가 하는 감정이나 행동을 보고 절제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다. 그에게는 나의 자연스런 움직임 보라고 했단다. 딱 중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연습은 그 과정을 찾는 행로

인 것 같다. 처음에는 장영실을 당대 과학 발전이라는 명분에 충실한 과학자로 봤는데 점점 주군이 좋아서, 잘 보이고 싶어 하는 인간으로 보이더라. 차가운 과학자와 연민의 인간으로 장영실을 표현하고 싶다.

작품과 사람으로 배우다-이원희(세종 역)

세종은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진다. 궁리에서 세종을 맡으며 부담감이 없었는가?

나도 무게가 있다.(웃음) 사실 감사할 따름이다. 대학에서 연극을 전공했지만, 아직 사회 초년병이나 다름없는 나에게 큰 기회를 준 연출가에게 감사한다. 다른 매체를 하고 있었는데 시나리오를 받았다. 시나리오를 단숨에 읽었다. 시나리오를 읽는 동안 '해야겠다.'는 마음이 '하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변했다. 연출가가 하라고 하기 전에 시나리오에 설득당했다. 세종은 우리나라 만인의 멘토며 연인이다. 역 자체만으로도 아우라가 있다. 게다가 천민출신의 장영실을 과감히 등용하고, 그의 소멸을 바라보는 세종이라니! 너무 매력적이지 않은가?

시나리오의 어떤 매력을 나를 잡았는가?

대본 중에 '너의 꿈이 무엇이나?'는 세종의 질문에 장영실이 '천민이 꾸는 개꿈입니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개인적인 우정과 사회적인 신분제도가 가지는 양면성이 극 반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 좋았다. 아버지는 원나라 출신이고 어머니마저 비천한 출신인 장영실을 총애하고 우정을 나누면서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그를 바라보는 인간적인 세종. 그리고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양면성의 세종이 매력적이었다. 시대극이 가지고 있는 구수하고 멋스러운 대사를 재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장영실이 만든 안여(수레)는 실제 사람들이 표현했다고 하던데....

장영실이 만든 안여가 쓰러지면서 세종이 떨어지는 컷

장면은 장영실과 세종의 갈등이 구체화 되는 중요한 장면이다. 그 장면에서 나는 나의 무게감이 타인에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웃음) 하지만 그들의 수고에 피해가 가지 않으려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궁리>를 처음 시작할 때는 연출가와 작품이 좋아 시작했는데, 좋은 점이 하나가 더 추가됐다. 그것은 사람! 일을 하다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일보다 힘들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사람으로 일이 더 좋아지고 애정이 생겼다. 20여 명이 넘는 열정적인 코러스의 노고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은 그 증거다.

장영실을 살리고 싶은 세력과 명의 눈치를 보면서 죽이려는 세력 사이에서 세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리의 사전적인 뜻은 '사물의 이치를 깊이 연구함'이라고 한다. 절대 군주와 인간미를 가진 세종이 '궁리' 끝에 장영실의 소멸을 바라봤다고 생각한다. 그걸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세종의 마음에 장영실이 살아 있다고 본다. 세종이 장영실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그 예이다.

본인의 말대로 사회 초년병이나 다름없는데, 일찌감치 큰 배역을 맡았다

맞다. 연출가와는 대학 때 제자와 스승으로 만났다. 재학 시에는 나를 잘 나갔다. 선배 연출자는 나에게 맞는 작품을 일부러 선택해 무대에 올렸을 정도다. 세상모르고 살 때였다. 그런데 사회 나와 보니 그게 아니었다. 고수들은 더 이상 산속에 있지 않았다. 연습실에 있었다. 자만에 빠진 나에게 배우 박신양은 '사회는 준비된 자를 선택한다.'는 말을 해줬다.

지금 소속도 '박신양 장학회'다. 박신양 장학회는 단순히 물질적인 장학회가 아니고 이 분야에 재능 있고 열정적인 인재를 인적, 물적으로 도와준다. 연기로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장학회를 만나면서 갖게 됐다. 🌈

남양숙 (프리랜서)



우아함 춤과 매혹적인 연기로 '발레 마니아'를 만든다

아름다운 발등의 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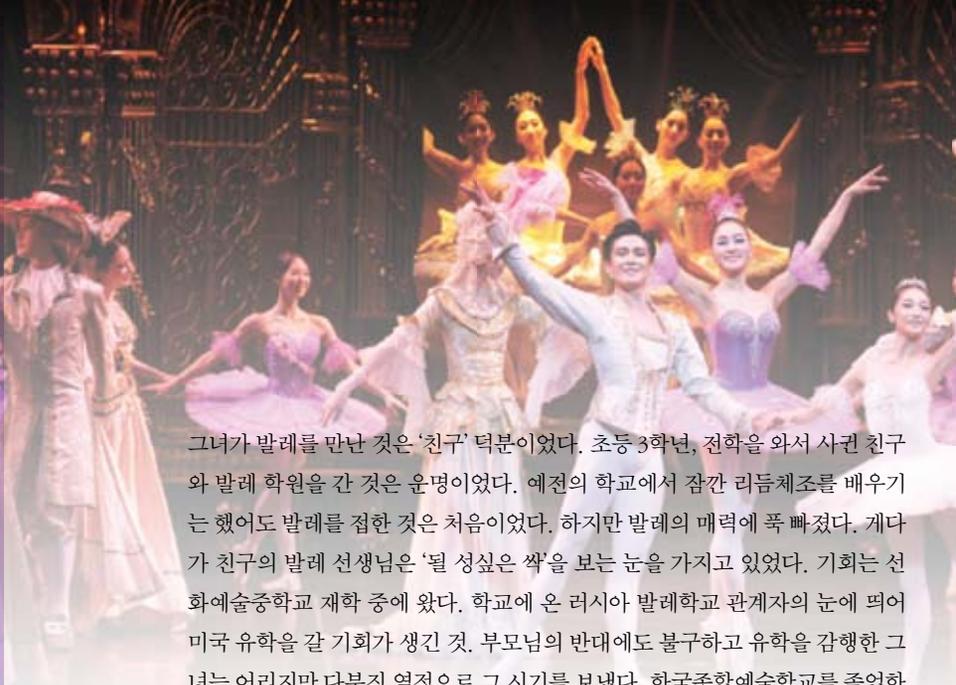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

황혜민

뮤지컬, 오페라처럼 발레의 대중화 속도가 빠르다. 발레의 대중화는 자연스레 무용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일부 무용수의 일거수일투족은 팬들의 관심사가 됐다. 국내 발레단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유니버설발레단의 황혜민 무용수도 발레 애호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무용수. 단련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와 섬세한 연기의 발레리나, 황혜민을 만났다.

발레-너는 내 운명

안산에서 출발한 지 두 시간이 지나서 도착한 곳은 유니버설무용단 연습실과 사무실이 있는 빌딩. 살짝 열린 욕중한 철문을 지나 건물로 들어가니 아름다운 선율의 발레 음악이 들렸다. 음악에 딱, 딱 박자를 맞추는 소리가 들으며 2층에 올라가니 유니버설무용단의 수석 무용수이자 프리마 발레리나인 그녀가 있다. 순간, 우리나라 최고의 발레리나를 지척에서 볼 수 있다는 설렘에 몸이 뜨거워졌다. 그것을 알 리 없는 그녀는 아직 짙은 바깥 날씨를 의식한 듯 '춥지 않느냐?'면서 방문자를 챙겼다. 무대 위에서 보았던 아름다움 외에 따스한 마음을 가진 발레리나 황혜민. 그녀를 보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 군더더기 없는 몸매와 어린 주먹 크기의 얼굴. 언뜻 보이는 쇠골이 호수처럼 깊게 패였다. 너무 마른 것 아닐까? 걱정이될 정도였지만 자세히 보니 온몸이 섬세한 잔 근육으로 되어 있었다.(무용인들 사이에서는 일명 발레 근육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녀가 발레를 만난 것은 '친구' 덕분이었다. 초등 3학년, 전학을 와서 사귄 친구와 발레 학원을 간 것은 운명이었다. 예전의 학교에서 잠깐 리듬체조를 배우기는 했어도 발레를 접한 것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발레의 매력에 푹 빠졌다. 게다가 친구의 발레 선생님은 '될 성싶은 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기회는 선화예술중학교 재학 중에 왔다. 학교에 온 러시아 발레학교 관계자의 눈에 띄어 미국 유학을 갈 기회가 생긴 것.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감행한 그녀는 어리지만 다부진 열정으로 그 시기를 보냈다. 한국종합예술학교를 졸업한 뒤엔 어린 시절 발레를 배우고 목표였던 유니버설무용단에 입단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유학을 하기에는 14살이 어리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기에 무섭지 않았습디다. 물설고, 낮 설은 이국땅이었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발레를 하면서 풀었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동양인(자신)의 우아한 발레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인터뷰하던 그녀의 눈길이 반짝하고 빛났다. 뒤돌아보니 한 외국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러시아 태생의 예부게니 네프로(Evgeny Neff)는 자신을 '황혜민과 오랫동안 작품을 해 온 수석지도위원'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을 완벽하게 해석할 수는 없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엑설런트'란 단어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녀에 대한 감독의 신뢰도를 알 수 있었다.

창작발레와 드라마발레도 재미있어요

그녀가 요즘 연습하고 있는 <잠자는 숲 속의 공주>는 마녀의 저주로 100년 동안 잠에 빠져버린 '오로라 공주'와 공주를 입맞춤으로 깨우는 '데지레' 왕자와의 사랑이 3막 4장 동안 펼쳐진다. 숲속에서 꿈같은 잠을 자고 있는 포스터의 주인공도 그녀, 황혜민이다.

발레가 대중의 사랑을 받고, 고전 발레 외에 창작발레도 다양하게 시도되는 요즘이 좋다는 그녀는 올 초에 공연한 4인4색(4人4色) 공연과 창작발레 '심청'이



재미있고 신선했다고 한다. 타 발레단의 주역 무용수인 김주원, 이정윤과 같은 발레단 소속의 임재용이 함께한 4인4색은 인생여정을 고독과 황혼, 감정 등 6개 주제로 표현한 드라마가 있는 발레. 그녀는 '드라마적 요소가 담긴 발레'에 대해 관심이 많다.

“ ‘드라마발레’는 기교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묻어있는 연기가 필요해 힘들어요. 하지만 몰입과 집중이 잘 돼요. 캐릭터에 흠뻑 빠져 춤을 추다 보면 내가 그 주인공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소규모 공연도 가능하고, 관객들의 호응도 좋지요. 창작발레 ‘심청’은 우리나라 발레의 방향성을 제시한 작품이 아닐까 싶어서 좋았어요. 세계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고요. 3막에서 심청이 왕과 춤추는 장면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이 함축적으로 녹여져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심청이 300석 받고 인당

수에 팔려가기로 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장면이 제일 슬프면서 몰입이 잘 됐어요.”

심청은 작년 한 해만 일본, 대만, 오만, 캐나다 등에서 성황리에 공연됐다. 특히 한복을 응용한 ‘한국적인 발레 의상’과 무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회자됐다고 한다.

발레에 입문한 지 20년이 훌쩍 지났고, 2002년 유니버설 발레단에 입단 후 발레단의 ‘간판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에게 ‘발레를 안 했으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은 하나 마나 한 것이었다. “발레를 안 했을 거란 생각은 안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재미밖에 모른단 말인가? 전에 그녀에 대한 글을 읽은 기억이나 재차 물어보았으나, 온라인 게임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대신 ‘맛집’ 찾아다니며 맛나고 영양가 많은 음식 먹는 것이 발레 외에 하는 일이란다. 그것도 결국 발레를 잘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유학을 하기에는 14살이 어리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꿈이 있었기에 무섭지 않았습시다. 물설고, 낮 설은 이국땅이었기에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발레를 하면서 풀었거든요. 나중에 알았는데 외국인 친구들은 동양인(자신)의 우아한 발레를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후학양성과 재능나눔을 통해 사회에 보답하고 싶어

발레는 몸의 예술이다. 발레리나에게 몸은 언어이며 상징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레를 하는 사람에겐 누구나 부상의 공포가 있다. “저는 운 좋게도 큰 부상이 없었어요.” 그게 어찌 운으로만 가능할까? 부상이 없다는 건 노력의 결과!

“연습 전에 몸 상태를 늘 점검합니다. 스트레칭 시간을 많이 갖고요. 부상은 무리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연습이나 공연 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단정한 어투로 말했다.

발레리나 활동 후에는 후진 양성에 힘을 쏟는 지도자가 되고 싶다는 그녀는 한 만남을 잊을 수가 없다. 천방지축이던 소녀는 발레를 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해지기 시작

했다. 하지만 소녀는 경제적 사정으로 발레 레슨을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 소녀를 위해 기꺼이 그녀가 나섰다. 해외 공연과 연습 등으로 그 후 그 소녀를 만날 기회는 많지 않았지만, 자신의 재능이 남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재능나눔’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현역 시절엔 무대에서 관객에게 감동을 주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요. 그 후엔 실력 있는 지도자로 발레단과 사회에 보답하고 싶어요.”

남양숙 (프리랜서)



일본의 지역 공공극장과 '극장법' 논란

지난 2~3년간 일본 공연계에서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뭐니 뭐니해도 '극장법(가칭)'일 것이다.

현재 일본에는 박물관을 대상으로 규정한 '박물관법'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 설립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 '도서관법' 등 관련법이 있다. 하지만 극장에 대한 법률은 없다. 사단법인 일본예술인연가단체협의회(이하 예단협)이 처음 제안해 일본 문부성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극장법은 공공극장(한국의 문예회관과 유사)을 활성화시키고 공연 예술의 공공적 가치를 사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단협은 배우, 가수, 연주가, 무용가, 연출가, 무대감독 등 프로 실연자 단체로 구성된 민간 공익법인으로 1965년 설립됐다. 71개 단체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산하 실연자 수가 9만 명에 이른다. 예단협이 제안한 극장법을 좀 더 간단히 말하면 예술단체 위주의 일본 공연예술 시스템을 극장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특히 버블경제 시대에 전국 각지에 지어져 2100여 개에 달하는 공공극장이 대관이나 흥행을 위한 공간에 머무르는 데서 탈피해 창조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神奈川芸術劇場



© tanukirako

이를 위해 공공극장을 '만드는 극장', '보는 극장', '교류 및 집회 시설'로서 나눠 지원 방식을 다르게 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현재 일본에 부족한 '만드는 극장'을 도요가 아닌 지역 곳곳에서 키우겠다는 것이다. 지역의 공공극장 가운데 일부를 제작 중심의 국립극장으로서 활성화하는 한편 이들 극장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의 작품을 유통시키겠다는 취지다.

극장법은 2001년 12월 시행된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 의거해 예단협이 발족시킨 '극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당시엔 극장의 안전이나 무대 기술자의 연수 및 자격 등 좀 더 시급한 사안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예단협이 2009년 3월 발표한 '사회의 활력과 창조적인 발전을 만들어내는 극장법(가칭)의 제언'에서 구체화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자민당을 무너뜨리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민주당이 문화정책의 정비에 들어가면서 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서울노트>, <과학하는 마음>, <강 건너 저편에> 등으로 한국에도 잘 알려진 극작가 겸 연출가 히라타 오리자가 내각 관방자문관(한국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유사)에 임명되면서 예단협과 함께 극장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그런데 예단협이 극장법을 들고 나온 배경으로 일본의 '지정관리자제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에

서는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서비스의 향상, 행정비용의 삭감, 민간 노하우의 활용을 기치로 공공극장에 지정관리자제도가 도입됐다.

지정관리자제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공공 또는 민간단체에 맡기는 것이다. 그전까지 관리위탁제도의 수탁자가 공공단체에 한정돼 있었다면 지정관리자제도에서는 문호를 넓혀 민간도 맡을 수 있게 했다. 업무 역시 관리위탁제도에선 상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관여도가 높다면 지정관리자제도는 업무 범위가 보다 넓는데다 자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현재 극장, 박물관,



히라타 오리자 내각 관방자문관

도서관 등 일본 전국 공립문화시설의 2/5 정도가 지정관리 자체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지정관리자체도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것은 일본의 지역 공공극장이 대부분 도쿄에서 제작된 공연을 구입해 보여주거나 지역 단체에 대관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이미 에도시대부터 가부키 전용극장이 여러 개 등장하는 등 극장 문화가 발달하고 '홍행'이란 개념이 확실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셈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토호나 쇼치쿠, 시키, 다카라즈카, 호리프로, 일본무대예술진흥회, 재팬아트 등 기업형 공연 제작 및 배급사가 여럿 있고, 이들이 도쿄를 비롯해 전국에 자체적으로 극장을 운영하거나 다른 극장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극단을 거느린 효고현 피콜로극장과 시즈오카현 무대예술센터 그리고 무용단이 있는 니이가타시 시민문화예술회관 등 극소수를 제외하고 일본 공공극장은 전속단체가 없다. 연출가 니나가와 유키오가 예술감독으로 있는 사이타마현 예술극

장 등 몇몇 공공극장이 전속단체 없이 제작극장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손에 꼽을 정도다. 따라서 제작을 하지 않는 극장의 운영이라면 굳이 지자체가 관여하기보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지정관리자체도가 도입된 이후 일본의 공공극장들은 민간의 경영 노하우 도입으로 영업능력이 향상되고 관객중심의 의식이 제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가 이 제도를 너무 예산축소 방편으로 운영하다 보니 예술단체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공연 환경이 가혹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 공공극장들이 '시민 오페라'나 '시민 뮤지컬'처럼 시민 참가형 사업에 힘을 쏟다 보니 프로 예술단체에 돌아갈 지원이 줄어드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최근 일본 문화정책 분야에서 절대명제처럼 돼버린 '시민 참가'와도 관련이 있다. 오랜 불황의 영향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민 참가'는 지

원의 타당성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극장의 경우 이전엔 프로 예술단체와 공연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에 그쳤지만, 지금은 문호를 개방해 시민들 스스로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극장법에 대한 문화예술계 여론은 엇갈려 있다.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공공극장 중심의 지원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민간기획사와 예술단체 중심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반발도 적지 않다. 특히 배우좌나 문화좌 등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형 극단일수록 극장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극장법 제정으로 극단에 지원 지원금이 없어지거나 극장의 관리를 받는 것은 아닌지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또 지역 예술가들은 중앙의 예술단체가 지역 공공극장의 상주단체나 제휴단체가 되면 지방에서 활동하는 단체는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극 중심으로 극장법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 음악과 무용계 역시 형평성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예단협은 극장법을 제정해도 극단에 대한 지원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극장 환경에 따라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과 무용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극장법의 명칭이 초래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사회의 활력과 창조적인 발전을 만들어내는 실연예술의 창조, 공연, 보급을 촉진하는 거점을 정비하는 법률(가칭)'이라고 바꾸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일본 문화청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 공공극장의 제작과 관련한 지원금을 새로 책정하는 등 준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정책의 입안부터 법률 제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느리다고 생각될 만큼 천천히 진행시킨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정책 방향이 바뀌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연속성이 있는 만큼 이 법률은 어떤 방식으로든 구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 공연계에 적지 않은 지각변동을 가져올 전망이다. 🌈

장지영(국민일보 기자)



© tanukine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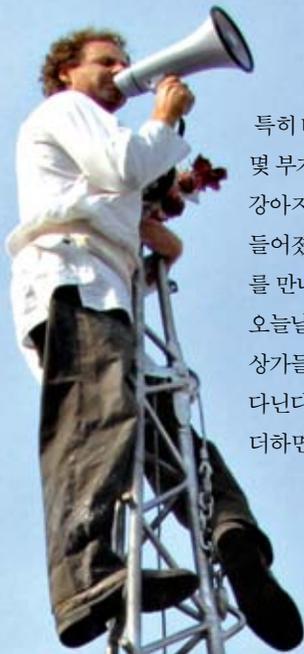
왜 거리에술인가?

비인간적이 된 거리 : 사막화와 상업화

사전에서는 ‘거리’를 “차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라는 다소 싱거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거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서 차와 사람 등 누구나 다닐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거리는 모두의 소유, 곧 공적(公的) 공간이다. 우리의 삶은 대부분 집이나 사무실 등 사적(私的) 혹은 제한된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거리는 이 사적 공간들을 이어주는 통로이다. 거리로 나온다는 것은 사적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는 거리를 사적 공간에서 나와 타인을 만나 토론을 벌이면서, 궁극적으로 여론이 형성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산업화에 따라 거리의 주인이 사람에서 차량으로 바뀌었다. 인도는 좁아지고 차도가 늘어났다. 강철로 무장한 차들이 거리를 썩썩 달리고, 연약한 생명체는 차량들의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피하기 바쁘다. 차량이 공기 중에 뿜어내는 시커먼 매연은 피할 길마저 없다. 그리고 보니 공기도 공공의 소유이다.

또 이들의 소음은 얼마나 귀청을 찢는가! 우리의 감각은 여기에 익숙해져 차량이 없던 먼 옛날 거리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는 거리가 어느 나라보다 황폐하고 거칠다. 서울의 몇몇 부자동네를 가보면 차도만 있을 뿐 인도가 아예 없다. 따라서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커녕 강아지도 없다. 이것은 생명체가 없는 사막하고 뭐가 다른가! 최근에 몇몇 광장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사방이 넓은 차도로 포위당해 접근하기 쉽지 않고 산책하거나 친구를 만나 소일하기에 편안하지 않다. 이들은 기껏해야 건널목으로만 활용될 뿐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도시에서 시내중심가는 백화점 등 상가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거리는 오로지 상가들을 들락거리기 위한 통로가 되어버렸다. 거리에 사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돌아다닌다.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은 오로지 경제행위뿐이다. 여기에 요란한 간판과 광고들이 한몫 더하면서 우리의 눈을 피곤하게 만든다. 거리가 상업화된 것이다.

오염된 예술

인간은 밥만으로 살 수 없다고 한다. 물론 배를 채우는 게 제일 먼저다. 하지만 조금만 배를 채우면 인간은 곧 놀이를 시작한다. 정말이지 인간은 가장 잘 노는 동물이라 할 것이다. 예술은 그러한 놀이 중 하나이다. 다른 놀이와 달리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우리 일상은 무한의 경쟁 속에서 거칠기 짝이 없는 싸움터가 되었다. 손은 피 마를 날이 없고, 눈에는 항상 핏기가 서려 있다. 동화에서 늑대는 날카롭고 거친 손에 하얀 밀가루를 바른다. 예술을 가지고 논다는 것은 배를 채우느라 거칠어진 우리의 손과 얼굴에 화장품을 바르는 것과 같을지 모른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다른 모든 행위와 구별된다. 예술이 있기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즐기는 품위 있는 동물, 바로 인간이라는 걸 자랑할 수 있다.

하루에 낮과 밤이 있듯 인간에게는 이성과 감성이 있다. 이 둘은 곧잘 서로 충돌하곤 한다. 이성(머리)이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감성(가슴)의 욕구를 억눌러서는 안 된다. 감성도 인간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일상은 대체로 이성에게 지배된다. 그러나 예술은 감성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본다. 그리고 이 예술을 통해 우리의 감성은 위로를 받는다. 이성과 감성, 이 둘의 욕구가 모두 충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심리적으로 건강한 인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술과 아주 하지만 사실 예술이 아닌, 사이비(似而非) 예술이 있다. 이들은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면서, 자신을 '대중예술'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일상은 이 대중예술의 홍수에 휩쓸려 있다. 대중예술이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파고들고, 우리는 미처 이에 대해 가치판단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대중예술의 출발은 판매다. 팔리기 위해서 만들어진다. 팔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돈의 논리가 다시 활개를 친다.

한 때 춤무로에서는 영화를 제작할 때 몇 가지 즐거이의



방향을 놓고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한 적이 있었다. 여기서는 예술가의 정신이니 혼이니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오로지 대중을 유혹할 수 있는 것만이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해선 종종 현실을 왜곡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폭력성, 허구성, 선정성은 이러한 행위의 결과물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대중들은 이 맛에 중독되어 때로는 현실을 잊기도 하고, 착각하기도 한다.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상주의(Sentimentalism)도 자주 이용되는 수법인데, 이 마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종종 이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를 '대중문화'라고 불렀다.

예술은 대중의 구미에 아부하지 않는다. 역사 이래로 예술은 아름다움(형식)을 탐구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기만의 진리(내용)를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예술이 특히 관심 갖는 부분은 우리의 삶에서 짙은 그늘에 가린 어두운 구석이다. 그리고 예술은 그것이 아무리 치부일지라도 드러내놓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권력에 대항해야 할 경우에도 물러서지 않는다. 더 나아가 위대한 예술가들은 인간과 세계에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해왔다. 예술가들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세계가 아직까지는 병들지 않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예술은 사회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래서 공공자금이 예술을 지원한다.

거리와 예술의 회복: 거리예술

오늘날 '거리'는 근대기계문명과 도시화에 의해 만남과 의사소통 그리고 여론형성의 공간이라는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사막화되고 상업화되었다. 거리예술은 이러한 비판을 바탕으로 공적 공간으로서 거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 거리를 예술공간으로 승격시키고자 한다. 사적 공간에 머물러있는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고, 보행자들을 경제행위에서 끌어내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생명으로 하는 예술을 펼쳐 보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막 같은 거리가 활력



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되찾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한다.

또한, 거리예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술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라는 원칙이 정치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라 문화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누구나 예술을 즐길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문화민주주의'이다. 그래서 거리예술은 다른 예술에 비해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잘 만들어진 예술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친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천부적으로 타고나지 않아도 누구나 예술을 통해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문화적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이 주장에 따르면 예술을 통해 자신을 자각하고 타인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며, 나아가 공동체의 건강한 일원으로서 '사회화'되는 데에 예외가 없다. 거리예술이 내세우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적 민주주의'는 결국 누구나 예술을 즐길 권리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몇 년간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다. 🌈

임수택(파천한미당축제 예술감독)



ASAC 특전
201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1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최고의 거리극축제로써 매년 60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았던 5월의 대표 공연예술축재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안산 25시 광장에서 2012년 5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3일간 펼쳐진다. 거리의 색동감(色.同.感)이라는 슬로건 아래 10개국 66개 팀의 공연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한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축제를 찾는 관객이 거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 (홍보대사, 로고송, 시민모니터링, 자원봉사자모집)

◆ 홍보대사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홍보대사는 2011년 처음으로 모집하였다. 전년도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많은 시민들이 홍보대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안산국제거리극80제의 80제의 홍보대사는 거리몽(夢)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거리에 서 이뤄지는 소통, 참여, 나눔의 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시민 홍보대사는 단순한 자원봉사가 아닌 적극적으로



로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시민으로 영상, 사진, 홍보모델 등 축제의 홍보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홍보대사 8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은 뉴스레터 취재, SNS 활동, 리포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 로고송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시민들에게 축제에 대해 재미있는 방법으로 알리고자 축제 로고송이 새롭게 제작하였다. 거리극축제 로고송은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가사로 축제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활용될 로고송 울등은 UCC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다. 지역에 있는 대학, 유치원, 동아리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였다.



◆ 시민모니터링

2012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새롭게 도입된 시민모니터링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어 가고자 시도되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모니터링을 자처한 12명의 시민모니터링요원들은 축제 공간 활용에 대한 효율성 조사와 공연 프로그램 조사, 시민들의 참여도 조사 그리고 자원봉사, Staff, 관계자 공무원의 근무태도 조사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확인을 담당한다.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참여하는 요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축제의 발전을 시민들과 함께 도모하고자 한다.

◆ 자원봉사자

이번 축제에는 1일 3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다. 해외공연단 통역 및 수행, 축제 안내, 교통통제, 주차장 관리 등 총 21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자원봉사 리더로 선발되는 15명은 봉사자는 4월 21일부터 사전활동을 하면서 최고의 시민 참여 축제를 만드는데 일조한다.

규모 Up!! 콘텐츠 Up!! 재미 Up!!

(2011년 축제와 달라진 2012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12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많은 부분에서 업그레이드되었다. 총 10개국 66개 팀이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국제적 명성의 단체를 섭외함으로써 예술성을 높였고 수준 높은 자유참가작(ASAFringe)의 참여가 돋보인다. 더불어 공연을 하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공연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단체들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아마추어(ASAFutures)들의 활발한 참여도 눈에 띈다. 그로 인해 관객들에게 양질의 공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폐막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거리공연으로 무대가 '거리'가 아닌 '하늘'인 작품이라 더욱 기

대가 크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야간 공연을 대폭 늘렸다. 야간전용 사이트를 배치하여 하루 내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업그레이드 된 것이다. 야간에는 공연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는 A!SSA CLUB이 젊은 관객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사이트 배치도 눈에 띄는 변화다. 공연 사이트를 25시 광장 안에 밀집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과 축제를 즐기는 데 있어서 집중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행사기간 동안 전면 24시간 교통통제에 따라 공연 사이트와 부대행사가 운영되는 구역을 분리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각종 운영 본부 배치에 있어 도로를 대폭 활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꾀하였다.

기획프로그램과 부대행사의 경우는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예술놀이터'의 경우는 작년 대비 조금 더 관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접근성을 높였다. 기획프로그램은 색다른 야간 문화를 즐길 수 있는 'A!SSA CLUB'을 마련하여 매력적인 야외 클럽을 선보일 계획이다.

우리 문화를 비롯하여 세계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다문화&우리 문화체험, 가족단위 관객에게 초점을 맞춘 가족놀이마당과 시민참여형 설치미술, 전래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있다. 설치미술의 경우 아티스트와 시민이 함께 완성해 나가는 50M 대형 그래피티 퍼포먼스는 관객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소원지에 소원을 담아 이루어줄 소원나무와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써 디지털아트와 사이트 표식이 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은 설치미술뿐만이 아니다.

이번 축제는 시민들의 참여 부분이 많아졌다. 앞서 간략히 설명한 시민 홍보대사, 시민 모니터링, 로고송 외에도 개막작과 더불어 진행되는 거리극학

교는 200여 명의 시민참가자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퍼레이드가 인상적이다. 거리극학교는 시민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체협의 장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프로그램으로써 새로운 시민 참여형 축제의 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2012년 5월 안산을 축제의 도시로 몰들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1년의 기다림 속에서 안산을 대한민국의 거리예술의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가 되었으며 이번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의 문화적 향유 욕구와 예술적 에너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2012ASAF Recomand Course (거리극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

◆ 가족코스

엄마, 아빠! 안산에 공연 보러 가요!

12:00~12:20 [체험] S1 [가족놀이마당]
4인승 자전거로 축제장 한 바퀴 돌아봐요

12:20~12:40 [체험] S2 [설치미술]
소원지에 나의 소원을 적어보아요

12:40~13:20 [식사] S5 [다문화 체험]
금강산도 식후경 다문화 음식 먹기

13:20~13:40 [체험] S6-1 [설치미술]
그래피티 퍼포머와 내 마음대로 그려보자

13:40~14:00 [공연] S6-1 [국내공식]
시원하고 신나는 물싸움 한 판!
(극단 펄통의 물싸움3 아빠, 일어나세요!)

14:10~14:50 [공연] S4 [해외공식]
웃음 만발, 코믹 마임 듀오의 서커스
(퍼니본즈의 퍼니본즈 쇼!)

15:00~16:50 [체험] S1, S2 [예술놀이터]
가족과 함께 만드는 즐거운 체험



17:00~17:45 [공연] S2-1 [해외공식]
거인가족 눈으로 세상을 보자!
(레 그란데 페르손느의 거인가족)

◆ 연인코스

일요일에 뭐해? 안산에서 축제한다던데?

12:00~12:35 [공연] S3-1 [해외공식]
만화를 기본 소재로 한 마임 공연
(실부뽀레의 조용한 코믹 커플)

12:35~13:20 [식사] S5 [다문화 체험]
금강산도 식후경 다문화 음식 먹기

13:30~14:10 [공연] S2-1 [해외공식]
얼굴 없는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한다?
(호모루텐스 컴퍼니의 달걀귀신)

14:20~14:40 [체험] S2 [설치미술]
소원지에 나의 소원을 적어보아요

16:00~17:00 [공연] S7 [국내공식]
코믹 마임, 환상의 비눗방울,
즐거운 저글링
(프로젝트 펀! 펀! 펀!의
Fun! Fun! Fun!)

19:50~20:15 [공연] S2-1
[국내공식] 빌딩 벽면에서 펼쳐지는
버티컬댄스(프로젝트 날다의 빛, 날다)

20:20~20:30 [공연] S3-2 [해외공식]
폐막작, 하늘을 나는 새로운 방법!
(보알라의 비상)



공연소개

◆ 해외공식초청작



1) 트란스 익스프레스(Transe Express) - 인간 모빌(Mobile Homme)

기중기를 사용해 등장인물을 하늘로 들어 올려 관객들의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마치 유아들의 모빌장난감을 연상시키며 관객들에게 환상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런 공중공연 방식은 도심 공간의 건축물들과 비슷한 높이에서 공연함으로써 도시의 한 공간을 무대화하는 야외공연의 특징을 극대화하는 작품이다. 드림군단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관객들의 반응에 맞추어 드림을 연주하며 거리행진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분위기를 이끌어 내는 공연.

2) 보알라(Voala Project) - 비상(Voala)

무대를 '거리'에서 '하늘'로 바꾼 보알라는 관객들 머리 바로 위에서 강렬한 기교와 스펙터클한 구성으로 관객들을 전율시킨다. 시적이며 동시에 마술과도 같은 강렬한 치유적 몸짓을 통해 단조로운 일상에 지쳐있는 사람들의 고단한 삶을 달래 준다. 기차를 기다리는 여행자들과 그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끄는 여인들의 이야기하는 공연.



3) 실부플레(Sivouplait)

- 조용한 코믹 커플(A Silent Couple in Humorous White)

수준 높은 마임과 독특한 인물 표현. 일본의 만화를 기본 소재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통해 여러 방법으로 재미있게 표현하여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재미와 해학이 넘치는 길거리 마임으로 빠른 흐름을 통해 우스꽝스럽고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여 웃음을 주는 공연.

4) 더 칩올라타스(The Chipolatas)

- 도로 위의 신사(Gentlemen of the Road)

전자음악에 맞춰 연주하고 표현하는 서커스. 광대와 연주자들이 보여주는 연극적 구성을 띤 이 공연은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관객에게 준다. '온고지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관객들의 가슴을 흔드는 공연.



5) 퍼니본즈(Funny Bones)

- 퍼니본즈 쇼(Funny Bones' Show)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는 공연. 서커스, 코믹 마술, 마임, 저글링, 비트박스 등의 다양한 분야를 이용해 언제 끝났는지 모를 정도로 관객들을 정신없이 웃게 하는 공연.

6) 클레어(Claire) - 벤치에서(De Paseo)

벤치에 앉고 싶어 하는 댄서와 댄서를 거부하는 벤치의 싸움 속에 강렬한 감정, 춤과 유머가 공존한다. 해학적인 그녀의 몸짓은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공감하고 감동을 느끼게 하는 공연



7) 오쿠다 마사시(Okuda Masasi)

- 버블버블(Bubble Bubble)

일본에서 온 키다리 아저씨, 오쿠다 마사시와 함께하는 따뜻한 동화 같은 비눗방울 공연.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비눗방울을 통해 풀어낸다. 섬세하고 따스한 재미로 이웃집 아저씨와 같은 친근함으로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공연.

8) 크라운마임(ClownmimeGroup)

- 크레이지 쇼(Funny Clown, Crazy Show!)

마술, 저글링, 마임을 관객들의 참여와 함께 진행하는 공연. 여장 차림을 한 두광대가 첫사랑을 시작하는 소녀들처럼 귀엽고 사랑스러운 일들을 벌인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말썽이 생겨나고 그들 중 한 명이 풍선 속에 갇히면서 관객들을 웃게 한다.



9) 레 그란데 페르손느(Les Grandes Personnes) - 거인 가족(Giant Family)

배우들이 조종하는 4m 높이의 거대인형들은 때 묻지 않은 아이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어릴 적 동화를 읽는 것과 같은 이 공연은 거대인형을 조종하여 구연동화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렸을 적 순수했던 마음으로 정화해 줄 것이다.

10) 하오(Hao) - 하오의 코미디 마임(Silent Comedy By Hao)

누구한테도 배우지 않고 독학으로 깨우친 하오의 마임 공연. 조용한 코미디라 일컬어지는 그의 공연은 팬티마임, 마술 등의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다. 모든 연령층이 좋아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공연



11) 뮤트(Mute) - 뮤트 쇼(Mute Show)

남자와 여자가 산책 중에 만났다. 그와 그녀에게 늙는다는 것은 매우 지루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쓰는 지팡이를 가지고 즐겁게 사는 법을 찾게 되었다. 그들이 쓰는 지팡이는 계속 변하고 이 커플이 가지고 있는 비밀로써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

◆ 국내공식초청작



1) 극단 걸판(Social Comedy Theater Gulpan)

- 이웃에 살고 이웃에 죽고(My fantastic neighborhood)

시골에서 이사 온 김영광 부부가 도시에서 벌이는 좌충우돌 정 쌓기 프로젝트. 김영광 부부와 성질만 내고 사는 옆집 남자, 락커를 꿈꾸는 백수 청년 그리고 매사에 뼈뚫한 여고생과의 악전고투를 통해 '이웃'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공연.

2) 극단 몸꿀(Theatre Momggol) - 충동(Impulse)

사랑하는 아내를 따라 하계로 여행을 감행하는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새롭게 각색되어진 공연. '충동'은 금기에 대한 인간의 갈등과 나약함을 이야기하며 질서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새로운 몸짓언어로 표현해 내는 공연.



3) 극단 서울괴담(Seoulkedam Theatre) - 정크 트럭(Junk Truck)

폐기물을 가득 실은 대형트럭이 굉음을 내며 도로 한복판에 선다. 차가 멈춰 서면 이상한 조짐과 함께 괴상한 존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로테스크한 파티가 시작된다. 그들이 예언자를 찾는 과정에서 관객들과 호호하며 묵시록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연.

4) 극단 필통(Theater Feel-Tong)

- 물싸움3 아빠, 일어나세요!(Dad! Wake up!)

아버지의 몸이 천근만근, 출근이 힘들다. 비정규직에 직장 내에서도 왕따인 아버지는 어느 날 부당해고를 당한다. 일방적인 통보를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의 생존경쟁. '물'을 소재로 IMF 이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정화시키는 공연.



5) 배낭 속 사람들(People in Backpack) - 어느 날 오후(Someday P.M)

형제가 빨래를 하면서 생기는 일. 관객들이 극 안에 들어와 배우들과 같이 움직이며 관찰자가 되어 즐길 수 있는 퍼포먼스. 인간의 이기심과 무의식적으로 자행하는 행위, 스스로를 황폐화 시키는 인간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

6) 연희집단 The 광대(The Gwangdae)

- 거리광대극 <홀림낚시>(Street Theater)

거리에서 펼쳐지는 흥겨운 인간 낚시질. 옛날 광대들이 되어 사람들을 놀리고 비꼬았다가 풀어주면서 즐거움을 준다. 이 시대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멀쩡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걸모습만이 아닌 내면까지 멀쩡한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공연.



7) 온앤오프 무용단(Dance ON&OFF) - 파란 운동화(The Blue Sneakers)

파란 운동화를 신고 춤추는 사람들,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 밖에 나와서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되는 상상을 한다. 군중 속에서 파란 운동화를 신은 사람들이 나오고 관심은 집중된다. 음울한 사회 속에서 희망을 배달해 주는 공연.

8) 창작그룹 노니(Creative Group NONI) - 바람노리(Playing Wind)

<강릉관노가면극>과 <길놀이>를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으로써 양반과 시시딱딱이 사이에서 자살을 선택하게 된 소매각시가 다시 살아나는 순간까지의 이야기를 길놀이 형식으로 풀어낸다. 고전을 새롭게 보는 시각을 제시하는 공연.



9) 프로젝트 그룹 Fun! Fun! Fun!(ProjectGroup Fun! Fun! Fun!)

- Fun! Fun! Fun!

대중들에게 생소한 마임이란 장르를 사람들과 함께하는 놀이판으로 만드는 고재경과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안내하는 팀클라운, 저글링 마임, 코미디, 서커스 등 다양한 기술로 관객을 웃게 하는 마린보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공연.

10) 프로젝트 날다(Project Nalda) - 빛, 날다(SHINE)

빌딩 벽면을 캔버스 삼아 드로잉 하듯 펼쳐지는 버티컬 퍼포먼스. 배우들이 입고 있는 LED의상에 불빛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아름다운 불꽃과 함께 예술적인 공중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공연.



11) 호모루덴스 컴퍼니(Homo Ludens Company) - 달걀귀신(Egg Ghost)

얼굴 없는 사람들이 도심 속 여러 일상적인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의 얼굴을 찾으려고 한다. 얼굴을 찾는 과정 속에서 관객과 소통을 하며 관객들은 배우들의 외적 형태의 기이함과 확실적인 움직임에서 오는 판타지를 경험하는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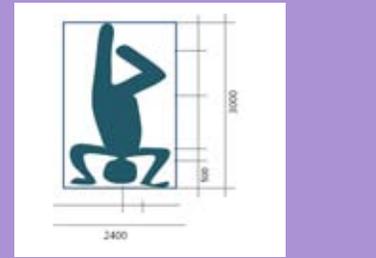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디지털아트 & 사이트표시)

축제 준비가 한창이던 2012년 초, 안산 소재의 서울예술대학 디지털아트학과 학생과 또 다른 서울예술대학의 대표적인 동아리인 “건축사랑”과의 우연한 계기로 만남이 있었다. 당시 축제 내에 신선함을 불어넣기 위해 고민하던 사무국 측과 자신들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갈구하는 학생들 사이에서의 만남인 것이다. 축제의 다양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무국과 학생들 사이의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각 담당 교수들의 지도 아래 학생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로 제작물의 수준을 높여 안산국제거리극 축제의 차별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며 사무국과의 수많은 회의를 거쳐서 축제에 가장 적합하고 차별성 있는 모델을 만들어 내기에 이르렀다.

자신들의 전공을 살린 각 팀은 새롭게 변화된 거리극축제에서의 다양함을 표현하고자 고민하였으며 고민들 거듭하던 결과로 서울예술대학 디지털아트학과 학생들은 축제 내에서 포토존 및 축제 홍보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아트 제작물을 만들기로 하였고 또한 동아리 <건축사랑> 25시 광장 내 7개의 공연 구역에 대한 사이트 표시물을 제작하기로 하였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의 단순 안내·홍보물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이 흔히 접해보지 않은 방식의 제작물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아트학과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팝콘 기계를 형상화한 조형물과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문 형태의 조형물을 각각 제작할 예정이며 이 제작물에는 동작 인식 센서 및 관객이 직접 터치하여 조작할 수 있는 이전의 안내 조형물에서 탈피한 형태로 제작 예정이며 사이트 표시물은 7개의 각기 다른 이미지를 선별, 제작 예정이며 기본 이미지는 축제의 활동적인 느낌과 재미를 더하며 각각의 공연장 별 소개를 위한 포토존의 형태로 제작 예정이다.

학생다운 패기와 신선함을 더한 서울예술대학 학생들과 다채로움을 선보이고자 하는 축제사무국의 고민이 함께 빛어내는 올해의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설치미술작품들은 다채로운 공연의 만족감에 더해 25시 광장 곳곳에서 관객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것이다.



홍보 특공대!! 게릴라 공연

2012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개막 2주 전부터 축제에 돌입한다.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위한 돌발적인 공연인 '게릴라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올해 ASAFringe 부문에 참여한 고도(Godot)의 인더홀(In The Hole)이 게릴라 공연으로 선정되었다. 고도의 인더홀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순수함과 동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4월 22일 14:00에 범계역에서 같은 날 18:00에 중앙역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나도 예술가!! 거리극 학교

거리극학교는 시민들을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체험의 장이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프로그램으로써 새로운 시민 참여형 축제의 사례를 제시하고 시민들에게 축제 참여와 체험을 통해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 자긍심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거리극학교는 개막작인 트란스 익스프레스(Transe Express)의 '인간 모빌(Mobile Homme)'의 퍼레이드 공연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졌다.

서양 타악과 우리나라 전통 타악의 협연 퍼레이드로 200여 명의 시민참가자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연으로 4월 초부터 축제 기간까지 공연관계자와 시민들이 함께 연습을 통해 잘 짜여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거리극학교는 관객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축제의도가 담겨진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거리극학교는 3월 30일(금)부터 5월 4일(금)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에 참여하는 시민 동아리는 원곡1동 매미쇠, 와동(미래경영센터), 안산 문화원, 월피동, 사1동, 신명, 청소년수련관, 본오1동과 반월동의 풍물단체가 함께 공연한다.





체험부스 소개

◆ 예술놀이터

예술놀이터는 재미있고 교육적인 요소를 조화시킨 다양한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놀이를 넘어 배움의 장을 마련하여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예술체험행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으며 이번 축제에는 총 15개의 예술놀이터가 준비되어 있다.

1. 공방 버들숲 / 풀짚 팔찌 만들기
2. 단청닷컴 / 생태 캐릭터 상감공예체험
3. 독도체험학습 / 독도모형 만들기, 독도생태환경 우드팬시 만들기
4. 성남시 현대 도예가 협회 / 도자기 체험
5. 아이다운 과학 공작 / 원목 장난감 및 곤충 만들기
6. 아이빅스 캠프 / 곤충체험학습, 자연창작공예 체험
7. 아티스토리 스튜디오 / 에코백 만들기
8. 자연미감 / 아로마향초, 디자인비누, 버블놀이
9. 안산 인물화가 협회 / 인물화 그려주기
10. 켈마트리 / 탄생석으로 만드는 팔찌, 귀걸이 만들기
11. 천사 부메랑 / 부메랑 만들고 날리기
12. 체험마당 / 캐릭터 팬시우드 체험
13.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 한지공예, 냅킨아트 만들기
14. 한국 과학발명협회 놀이과학 공작실
15. 한국인성소통협회 전래놀이감 만들기

◆ 과학체험

과학체험은 예술놀이터와는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체험형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과학 및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적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5월 4일 : 한지 만들기, 왕눈이피리
 5월 5일 : 제기 만들기, 소리를 빛으로
 5월 6일 : Fusion 연 만들기, 부부젤라
 5월 4-6일 : 하이브리드 시계, 환상의 세계로, 로봇체험



◆ 소방체험

소방체험 또한 체험형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총 4종류의 체험을 통해 안전교육을 접할 수 있다.

- 5월 4-6일 : 소화기 체험, 연기 체험, 지진 체험, 응급처치 체험



◆ 아이스크림 만들기

많은 체험 중 가족단위에 초점이 더 맞춰진 체험으로써 보다 풍성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프로그램이다.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맛볼 수 있는 체험.

2012 ASAF MAP

축제지도(안산25시광장)



◀ 안산시청 방향

호수공원 >>

Futures League!! (아마추어 경연대회)

ASAFutures는 지역 아마추어 단체 및 동아리들에게 축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축제참여와 세대 간의 유대감 조성을 위한 참신한 공연 유치 및 미래의 거리예술가를 발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설되었다. 총 17개의 단체가 선정되었다.

◆ 공모 선정팀(가,나,다 순)

- 가리온 무용단 / 생각 ... 차이
- 라데꾸 / 라데꾸의 말대꾸
- 모아맘밴드 / 우리는 이렇게 산다
- 블루버드 / 스탠다즈 재즈 & 라틴
- 스마일봄스 / 리믹스
- 신안산대학교 생활음악과 / 젊음의 행진
- 안산디자인문화고 예천 / 아이야 청산가자!
- 알럽밴드 / 사랑희망나눔콘서트
- 오리지널 마인드 / 강시
- 오키드 크라운 무브먼트 / 거리낌의 거리
- 줌,B / 소중한 순간
- 초지중학교 제우스 / 두드림
- 케이티비&아드레날린 /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하는 락 콘서트
- Dandy's / 우리들의 퍼포먼스
- J. IS / 다크 엔젤
- Rebellion / Activity Youth
- Winners / 안산을 응원하는 청소년



병사이야기 THE SOLDIER'S TALE

오페라보다 자유롭고

연극보다 흥미로운

새로운 음악극

20세기 최고의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음악 유럽의 실력과 뮤지션으로 구성된 8인의 퀴츠 앙상블 연주 사실주의적 인체조각가 최수양 디자인의 인형 파우스트 등 서구문학의 원전, 병사이야기!

공연명 음악극 (병사이야기)
공연일정 5.5(토)-6(일) 토요일 3pm 일요일 3pm
관람료 R석 50,000원 S석 30,000원 (전석1층)
작곡/극본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 페리디난트 라무즈
연출/인형디자인 장 미셸 도프 / 최수양
공동제작 안산문화예술의전당 , Théâtre de la Place , 아시아나루, Point Zero
공동기획 Theatre de la Place, 부산국제연극제, 벨기에 대사관

한국-안산문화예술의전당 & 벨기에-플러스 극장 공동제작
음악 + 인형극 + 연극 = 총체극!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종합아트센터로서 다양한 장르의 제작경험을 쌓고 국제교류를 확대하고자 유럽 현대공연 예술의 중심지인 벨기에 플라스 극장(Theatre de la Place) 과 아시아예술가들을 합류시켜 음악과 연극, 인형이 접목

20세기 천재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음악



세계적인 인체조각가
최수양 디자인의 인형



유럽의 실력파 뮤지션
'퀴츠 앙상블' 연주
지휘 Jean Thorel



된 총체극인 병사이야기를 제작하였다. 20세기 천재작곡가로 칭송받는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병사이야기는 1918년 스위스에서 초연된 음악극으로 오케스트라의 주요 악기들에 대한 높은 연주 실력이 요구되어 쉽게 도전하기 힘든 작품이다. 하지만 곡의 특성상 서커스, 춤, 탱고, 행진, 왈츠, 래그타임 스타일은 관객과 연기자들을 몰입시키고 극 전체적으로 흥겨움과 예술성을 동시에 끌어내는 매력을 지닌 작품이다. 2개의 세계대전 사이에 살았던 작가들이 표현하고자 했던 그 시대의 불확실성과 상실감은 현대인들에게도 느껴지는 공통점으로 예술가들이 동시대의 언어로 풀어보고자 한다. 공연계에서 '병사이야기' 작업은 신선한 도전이자 관객에게는 예기치 않은 선물이 될 것이다.

“오페라보다 자유롭고 연극보다 흥미롭다” 관객에게 자유로운 상상과 환상을 선사하는 5월 가족극

한국-벨기에 공동 제작극 '병사이야기'는 돈과 권력이라는 달콤한 제안을 하는 악마의 울가미에 걸려 불행의 길로 들어서서 병사의 이야기로 삶이 가진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현대인의 어리석음을 보여준

다. 병사가 자신의 양심과 유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 '인체조각가로 불리는 최수양 디자이너'의 인형을 사용하고 이는 마치 삼쌍둥이처럼 매우 유기적으로 배우와 조정자의 몸과 함께 움직이며 극의 중심에서 그 기형적 자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다. 두 개의 존재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이며 누가 누구를 조정하는지 헷갈릴 정도로 정교한 연기는 감탄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극 전체를 동화형식으로 취하여 한 국배우가 나레이션 하고, 연기, 춤을 추면서 가족관객의 쉬운 이해를 돕는다. 음악극 '병사이야기'의 음악적 특징인 탱고, 래그타임, 왈츠, 행진곡 등은 음악이 갖는 다양성을 느끼게 해주며 관객들이 자유롭고 환상적인 상상을 할 수 있게 이끈다.

포인트1. 20세기 천재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 칭가를 자랑하는 세련된 음악, 시대를 앞서가는 파격적인 연주
병사이야기는 바이올린과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과 바순, 트럼펫과 트롬본 그리고 타악기로 단 7명의 악사로 연주된다. 오케스트라를 구성하는 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음역대가 넓은 고음과 저음에 해당하는 악기를 하나씩 뽑아낸 스트라빈스키의 재치를 엿볼 수 있다. 타악기는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극을 관통하는 듯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오케스트라의 웅장함을 느끼게 할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퀴츠 앙상블] 지휘_ Jean Thorel

1991년 결성된 퀴츠 앙상블은 벨기에(브뤼셀, 몽스, 안트워프)를 비롯한 다양한 해외음악학교(독일 하노버, 프랑스 파리, 캐나다 몬트리올) 출신 등과 유럽의 여러 음악콩쿠르에서 수상한 실력과 뮤지션으로 구성되어 있다. 멤버들은 정기적으로 개별 솔로활동,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통해 고음악과 현대음악을 연주하고 있으며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를 포함한 전 세계의 다양한 페스티벌과 마스터 클래스의 초청을 받는 연주단이다.

포인트2. 극사실주의 인체조각가 "최수양 디자이너"의 인형
병사이야기에는 인형이 등장한다. 인형은 인체조각가

로 유명한 최수양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병리학적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그의 예술적 감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극도로 사실적인 인체표현은 소름이 돋을 만큼 감탄사를 자아낸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그의 디자인은 공연과 현실 사이를 쉽게 좁혀주고 관객들로 하여금 인간에 대한 연민과 증오를 동시에 느끼게 하면서 스스로 치유하고픈 힘을 갖게 한다.



포인트3. 2011 세계국립극장 페스티벌에서 호평받은 Theatre de la Place'협작! 2012 부산국제연극제[BIPAF], 국립극장 초청작!

유럽 현대공연 예술의 중심지 벨기에 Theatre de la Place 극장은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국립극장 페스티벌에 <파지나 피양카>로 호평을 받으며 불어 문화권인 왈로니아-브뤼셀 지역의 5대 극장이다. 2013년 새로운 극장의 개관을 앞두고 오프닝 공연으로 <병사이야기>를 선정하였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협작하여 한국관객들과 만나고자 한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초연될 이번 공연은 2012 부산국제연극제와 서울 국립극장에서도 공연될 예정으로 현실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음악과 연극 언어로 풀어낼 것이며, 양국 간의 예술적 교류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줄거리]

한 병사가 바이올린을 들고 전쟁 중 휴가를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가는 길에 병사는 악마를 만나고 그에게서 바이올린과 마법의 책을 바꾸자는 제안을 받는다. 병사는 이를 승낙하고 악마를 따라간다. 병사는 악마의 집에서 3일을 보내고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하지만 사실 3일이 아니라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이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물론 마법의 책 덕택에 병사는 잠시 부자가 되지만 동시에 그는 행복에서 멀어진다. 결국, 병사는 악마에게 굴복한다. 🌈

김수진(공연기획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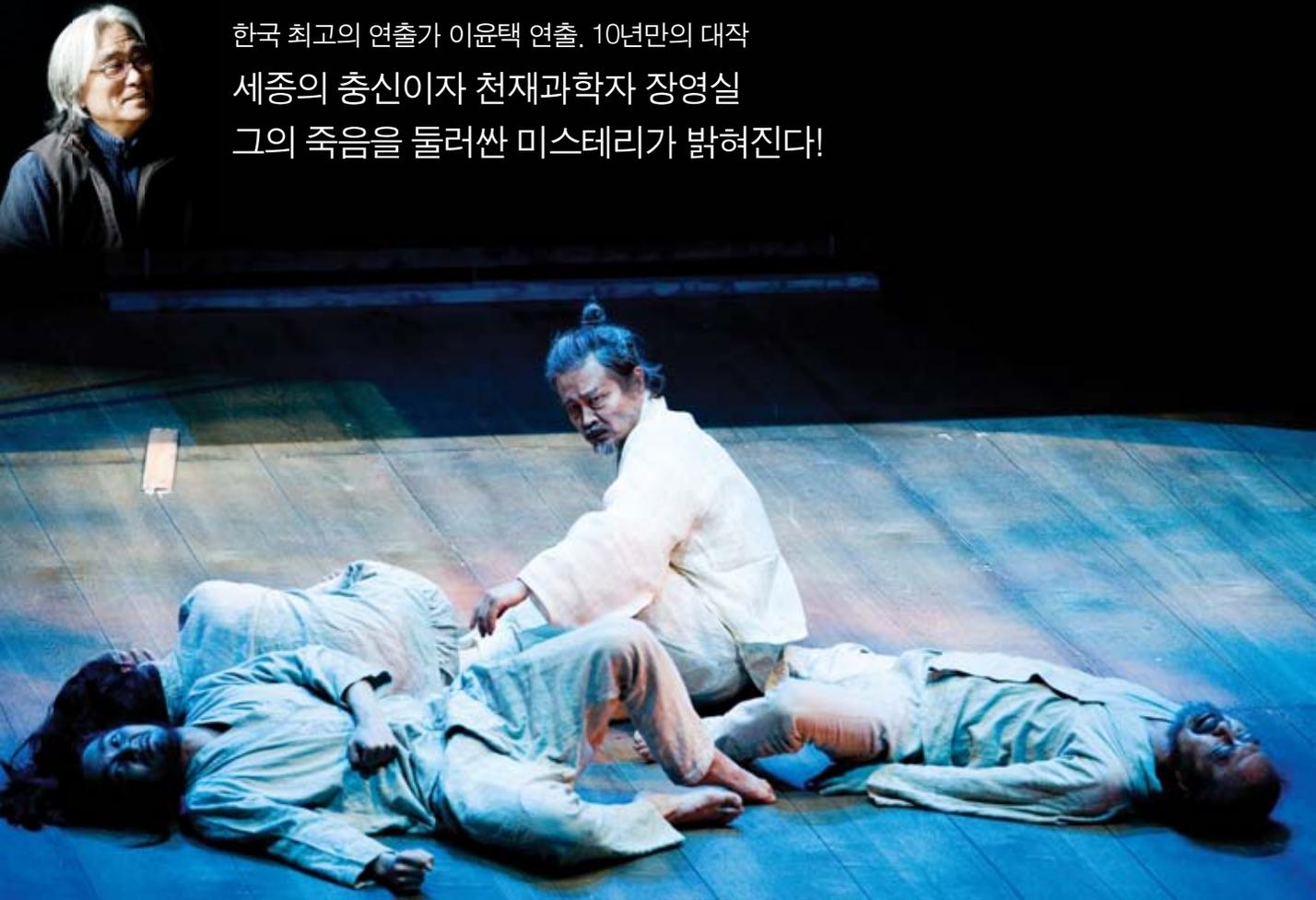
“주군이여, 왜 내게 안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립극단, 대전문화예술의전당, 고양문화재단 공동제작!

장영실 실종 다룬 역사극 대작

연극 궁리

한국 최고의 연출가 이윤택 연출. 10년만의 대작
세종의 충신이자 천재과학자 장영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가 밝혀진다!





▶ 5.18(금)-20(일)

공연시간 18(금) 19:30 / 19(토) 15:00 / 20(일) 15:00
 입장권 세종대왕석 3만원 / 장영실석 / 2만원 / 학생석 1만원
 공연예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www.ansanart.com
 콜센터 080-481-4000

press review

관록의 연출가 이윤택
 26명의 배우, 화려한 군무, 웅장한 음악으로
 관객의 오감을 사로잡다! -경향신문

정치가 연극이요 연극이 정치로다
 이 정도면 됐다 생각과 끝없는 싸움...
 난 아직도 대박을 기다린다 -조선일보

거침없는 대사와 날카로운 해학,
 상상력을 일으키는 무대공간
 전통 연극의 모미를 선사하다! -연합뉴스

“원하신다면 하늘을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내 별자리 하나 가져도 되겠습니까, 주군?”

조선의 비와 바람과 구름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되고자 하는 세종 그리고 그를 위해 조선 임금의 별을 하늘 중앙에 옮기겠다는 영실. 영원한 변방인 장영실. 관노비 출생이자 서울 사람이 아닌 부산이란 지역민으로 세종대왕의 충신이 된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업적과 세종을 향한 충심은 그 어느 곳에도 자세한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지 못했다. 그 무엇이 장영실을 역사 속 실존 인물로 만들었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큼 시대를 앞서 간 천재 과학자, 그가 남긴 발명품 이외에는 모두 사라져 버린 장영실의 역사적 전기!

과연 장영실의 일생의 업적은 무엇 때문에 말살 되었나? 그 권력의 감옥에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주군이여, 왜 내게 안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세종은 장영실에게 ‘안여(수레)’를 만들라고 명한다. 그러나 세종이 타고 가던 안여 바퀴가 빠지고, 임금은 수레와

함께 땅바닥에 처박히는 사고가 일어나고 만다. <궁리>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안여가 부서지는 사건을 계기로 장영실은 주군 세종을 음해한다는 오해를 받는다. 작품은 안여 사건을 중심으로 세종과 장영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주변의 권력관계를 보여준다. 세종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장영실은 앞서 가는 지식이자, 조선의 새로운 인물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견고한 계급과 권력 앞에서 인생 최고의 친우이자, 이상을 같이 나누었던 세종과의 관계는 파괴되기 시작하는데…….

한국 최고의 연출가 이윤택! 그가 말하는 “궁리” 그리고 그의 ‘장영실’ 26명의 배우 최고의 스태프들이 만들어 내는 대작 드라마!

이름만으로도 브랜드가 되는 한국 최고의 연출가 이윤택. 그는 ‘한국의 문학적 아나키스트’라고 불리울 정도로 제도 와 권력의 반대편에서 있는 연출가이자 극작가이다. 이번 작품 <궁리>는 무정부주의적 이윤택의 철학이 오롯이 녹아있는 작품이다.

세종의 충신으로 일생을 바쳤지만, 결국 알 수 없는 권력의 암투에 휘말려 명분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영실. 그는 모든 배신 뒤에 비로소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해 내며 세종의 존재를 지워 버린다.

연출가 이윤택은 장영실처럼 그만의 별을 품고 있다. 예순의 나이에 접어들어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인 그는 이제까지의 작품은 습작이며 지금부터 100년을 남길만한 고전을 쓰고 싶다고 말한다.

<시민K>, <문제적 인간 연산>, <시골선비 조남명> 등 시대의 지식인을 그려온 이윤택.

<궁리>는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하여 현대와 조선을 넘나드는 무대를 선보이고, 26명의 배우가 펼치는 앙상블은 그간 이윤택이 주력해온 한국적인 정서를 반영한 공연양식 무대화의 완성형을 직접 확인케 한다. 🌈

손유주 (공연기획부)

ASAC우수소극장시리즈5.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 〈극적인 하룻밤〉, 〈모범생들〉,
〈임대아파트〉에 이은 ASAC이 선택한 다섯 번째 우수소극장 시리즈!!
2006년 올해의 예술상 수상작!!!!

ASAC STAGE
연극 '춘천거기'

연극

춘천거기

너무 사랑했기에 너무 아팠던 사랑은
지금 다시 찾아갑니다.

2012.5.24(목)~27(일)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목요일 오전 11시(아침살롱2), 오후 8시 / 금요일 오후 8시 / 토요일 오후 3시, 7시 / 일요일 오후 2시, 6시
티켓 전석 2만 2천원(만12세 이상 관람가)

공연소개

혜화동 1번지 4기 동인으로 젊은 작가, 젊은 연출로 주목받으며 관객으로부터 그 실력을 인정받은 김한길 연출의 대표작 '춘천거기'는 2006년 올해의 예술상 연극 부문에 선정된다. '입소문'이라는 미신적인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진 연극 '춘천거기'는 그 젊은 기운이 뽐어내는 진실함의 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 젊은 기운 또한 젊은 배우의 사실적인 인물 표현과 그들의 앙상블로 옛날 친구를 만난 것처럼 마음을 파고 든다

Press

꿈의 도전 펼치는 연극, 배우들의 호연과 극의 형식미에 박수를 보낸다.

-2009, 8 조선일보

특별한 홍보도 없이 입소문만으로 연일 매진을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아름다운 연극이다.

- 2008, 6 헤럴드경제

오랜 공연 제작에 관록 있는 극단 동숭아트센터가 반한 연극, <춘천 거기>는 분명 대학로의 대표 연극이 될만한 작품임에 틀림없고 착실히 준비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더욱 기대되는 작품! 백만 관객을 꿈꿀 수 있는 작품! <춘천거기>!

- 한국연극 7월호 기사 #

사랑에 관한 담백한 웃음 속 진지한 사유

사랑,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그 마음의 사치……라는 노랫말이 있다. 그러나 우린 사치를 부릴 여유도 없이 사랑이 닥치면 폭풍 같은 감정에 휩쓸리며 내 인생 모두를 걸고, 떠나가는 사랑마저도 아름다워 붙잡으려 애쓴다. 결국, 지나고 나면 모두 아련한 추억이 되거나 냉랭한 기억이 되기도 할 것을 그때는 알 수가 없다.

여기 그 지나간 자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연극 한 편이 있다. 아니, 지나고 있는 그 길을 함께 웃고, 울며 걸어가게 하는 연극이 더 옹은 표현이겠다. 110분 동안 같이 걷고 난 후에는 내 사랑을 되돌아보고 웃음 지을 수 있을 담백한 유머와 진지한 사랑이 담겨있다. 분명 이 연극을 보고 난 후 관객들의 사랑은 더욱 사려 깊은 온기를 갖게 될 것이다.

여행... 물안개의 도시 춘천으로의 동행

일상의 여유는 뜨거운 폭염 아래 녹아 질척대는 여름.

열대야가 기승이라는 뉴스 앵커의 멘트에 가슴 철렁이며 걱정부터 앞서는 밤.

근교에 짬을 내어 가기도 급급한 팍팍한 삶 속의 썩썩한 내 모습.

'춘천거기'는 이런 바쁜 일상 속에 마음의 돌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손 내민다. 춘천 어딘가의 펜션, 발 시리게 차가운 강물에 발 담그고 아이처럼 푹푹 뛰며 즐거워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냥 부럽게 한다. 사진을 찍고 깔깔대며 좋아하는 웃음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게 한다. 낮의 시원한 물놀이가 끝나고 밤에는 도란도란 모여 앉아 도시에는 이제 어색해진 촛불을 켜고, 내 경험이라네 하며 귀신 얘기를 하고, 거나하게 술잔을 나누며 그들은 청춘을 즐긴다.

연극이 아니라면 객석을 뛰쳐나가 사이를 비집고 앉아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그래서 관객들은 마치 짧은 여행을 갔다 온 느낌에 왠지 그립고, 정답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공연장을 나서게 될 것이다. 이 여름, 어디 갈 곳 없어 외로운 방치된 남아있는 그대들, '춘천거기'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물안개의 도시 춘천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랑을 찾아 여행을 떠나라!

다양한 사랑의 모습에서 나의 사랑을 알게 된다.

배우들은 마치 관객을 앞에 두고 “나는 이런 사랑 중이야, 너는 요즘 어때니?” 하고 묻는 듯하다. '춘천거기'는 세 가지 모양의 사랑을 보여준다. 소위 불륜이라 불리는 유부남 명수와 선영의 사랑, 서로 사랑하지만, 각자의 과거를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해 갈등하는 세진과 영민의 사랑, 이제 막 서로를 알게 되고 떨어지는 수줍은 사랑의 응덕과 주미, 그리고 뒷모습만 보고 마음 아프게 삼켜야 하는 병태, 지환의 아쉬운 사랑이 연극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있다.

복잡하고 아름답다는 그 사랑이 짧은 한 편의 연극에서 우리의 사랑의 모습과 맞물린다. 어느새 배우 누군가의 모습에서 내 얼굴이 오버랩 되고, 그들의 대사가 내 입에 감기고, 데자뷔처럼 장면이 살아날 때 '춘천거기'의 매력을 알게 된다. '춘천거기'는 내 사랑의 일기이고, 내 기억의 일부이다. 그래서 공연장을 나가며 관객들은 내 사랑의 모양을 되돌아보고, 확인하고, 단단하게 다지게 되는 경험을 한다. 아름다운 추억이던, 쓸쓸한 기억이던 '춘천거기'를 보고 난 후에는 마음도 춘천 어딘가에서 되새기게 될 것이다.

자연스러운 일상과 무대 사이의 간극

대사의 유연함과 사랑에 관한 진지한 담론이 '춘천거기'의 묘미이다. 마치 내 친구가 나에게 툭툭 털어놓는 사랑에 관한 고민을 가벼운 마음으로 듣다 본인도 모르게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연극이다. 폼 잡거나 어려운 마음에 짐을 지우게 하는 연극이 아니며, 가볍고 멍멍한 깊이 없는 연극도 아니다. 관객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융통성 있게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며 극에 몰입하게 하는 현재 대학로에서 보기 드문 수작이다. 🌈

김수진 (공연기획부)

2012 안산예술의전당 오픈스페이스 프로젝트 참가작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이 선택한 단 하나의 뮤지컬

2011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국내우수작
2010 PMC프로덕션 무대드림 사업 선정작
2010 수리인큐베이팅 뮤지컬페스티벌 최우수상

MUSICAL

CASH

작 / 연출 정 기 환

공연정보

- 공연명 : 뮤지컬 <캐쉬>
- 공연일자 : 2012년 6월 13일(수)-6월 17일(일)
- 공연시간 : 수,목8시 토3시 7시,
일요일 3시 / 총 5일 6회
- 공연장소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 관람연령 : 14세 이상
- 관람시간 : 90분
- 티켓가격 : 30,000원

예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080-481-4000, 031-481-4039

인터파크 1544-1555





공연소개

2010년 PMC무대드림 사업 선정, 수리 인큐베이팅 뮤지컬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2011년 국립극장에서 주최하는 제5회 세계국립극장페스티벌 국내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립극장 별오름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작품의 완성도만으로 전회 앵콜, 90%의 유료 객석 점유율, 60% 매진율을 보이며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다. 잘 짜여진 드라마, 스탠딩 콘서트, 코미디와 쇼가 어우러진 버라이어티 한 뮤지컬 <캐쉬>가 2012년 6월 문화도시 안산에서 관객과 다시 만난다.

리뷰

'캐쉬'는 꿈을 잃어버린 이 시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통을 이끌어 낸다. 소재는 진지하지만 작품은 무겁지 않게 흐른다. - 국민일보 쿠키뉴스

아이돌 VS 인디밴드

꿈, 성공, 사랑... 캐쉬가 지배하는 세상

멜로로 포장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2012년 우리들의 진짜이야기.

시놉시스

꿈, 우정, 의리, 사랑은 사치에 지나지 않는 곳, 화려해 보이지만 냉혹한 쇼 비즈니스 세계.

각박한 현대 사회의 모습이 가장 적나라하게 투영되는 그곳에서 인물들은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 상처 입으며 스타가 되려 한다. 그러나 전문가 행세를 하는 가짜 전문가들과 특종에 혈안이 된 기자들 때문에 상황은 그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유비쿼터스 시대 개인 미디어로 무장한 대중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마지막 순간 오로지 사회적 성공을 위해 힘을 합하게 된다. 그들은 각자가 추구하던 꿈을 전부 포기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성공을 거둔다. 그곳에서 CASH의 유혹은 강력하고 CASH 앞에서 개인의 꿈들은 나약하기만 하다. 🌈

김수진 (공연기획부)



노이즈오프 NOISES OFF

- ▶ 공연일시 및 장소 : 6.23(토)-24(일) 달맞이극장 / 23(토) 3시, 7시 / 24(토) 2시, 6시 ▶ 러닝타임 120분
- ▶ 관람연령 : 14세이상 ▶ 원작 : Michael Frayn ▶ 연출 : 백원길
- ▶ 출연 : 서현철, 황정민, 안신우, 장현정, 전배수, 김동근, 백원길, 김로사, 정의욱, 감광덕, 이주원, 방현숙, 김나미
- ▶ 공연예매 : 안산문화예술의전당 www.ansanart.com ▶ 콜센터 : 080-481-4000

-1982년-

Michael Frayn, 10년간의 집필 끝에 작품을 완성하다!
Evening Standard Theatre Awards 'Best Comedy' 수상

-1983년-

Tony Awards 'Best Play' 수상

-2006년 한국 초연~현재-

가는 곳 마다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런던 웨스트엔드를 비롯 30년간 전세계 40여국에서 공연 중!

▶ 전 세계 평단과 관객에게 인정받은 치밀한 희극성

마이클 프레이인(Michael Frayn)은 <코펜하겐> 등으로 유수의 시상식을 휩쓴 유명한 작가지만, 희극 전문 작가는 아니다. 그런 그가 연극 <노이즈 오프>를 완성하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할애했다. 공연장을 찾아가 무대와 배우를 꼼꼼히 체크하고, 관객들의 반응을 살피며 끊임없이 수정해 갔다. 결국, 그는 관객들의 웃음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연극 <노이즈 오프>는 1982년 런던에서 초연 이후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장기 연속 공연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작품이다. 그와 동시에 '숙련된 작품 구성과 풍부한 내용으로 80년대 코미디 진수를 보여주었다'라는 평단의 찬사를 받으며 1982년 Evening Standard Theatre Awards에서 Best Comedy상을, 이듬해 Tony Awards에서는 Best Play상을 거머쥐었다.

런던 웨스트엔드를 비롯해 전 세계 많은 국가의 관객들이 열광하고 있는 고급 코미디 작품인 연극 <노이즈 오프>가 영화와 책으로도 여러 번 제작되며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객들을 흥분시키는 이유는, 이 작품이 마이클 프레이인 특유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함께 치밀한 희극성, 바로 '재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숙련된 작품 구성과 풍부한 내용, 정교한 유머 타이밍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아시아에는 2005년 최초로 일본 도쿄 신국립극장에서 소개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초연되었다.

▶ 파격적인 소재와 설 새 없는 웃음! 그 명성 그대로 5년 만에 돌아오다!

연극 <노이즈 오프>는 2006년 한국 초연에서 안석환, 양택조 배우 캐스팅과 함께 '무대 뒤 배우와 스태프들의 이야기'라는 파격적인 소재와 폭소 코드로 '2006년 최고의 흥행 연극'으로 기록된 흥행작이다. 이 작품은 1막에서의 주 배경이었던 6미터 높이의 이층집 세트를 통째로 180도 뒤집어 보여준다. 즉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백스테이지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무대 앞뒤를 설새 없이 넘나드는 뒤죽박죽 해프닝을 현장감 있게 표현했다.

선풍적인 인기는 2007년 앙코르 공연에서도 계속되어 2007년 앙코르 공연이 막을 내렸을 때, '빠른 시일 내에 다



시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작품을 단분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만 하다'는 관객들의 아쉬움 섞인 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5년간의 기다림을 뒤로 하고 2012년 6월, 연극 <노이즈 오프>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찾는다. 연극 <노이즈 오프>를 잊지 않고 있었던 관객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뮤지컬 <비밥>의 코미디 연출이자 뮤지컬 <점프> 연출로도 유명한 배우 백민길이가 연출로 참여해 활기찬 무대와 빠른 템포로 관객들에게 더욱 업그레이드된 고품격 코미디를 선사한다.

▶ 작품 속 빼놓을 수 없는 재미, 극중극 <빈집 대소동>

극중극 <빈집 대소동>의 리허설과 공연 준 무대 뒷모습 대공개! 180도 돌아가는 이층 가정집세트를 보는 재미는 덤!

▶ 개성넘치는 연기파 배우들의 완벽한 앙상블로 선보일 고품격 코미디!

단단한 실력과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갖춘 화려한 경력의 배우들 대거 투입! 더욱 기막힌 요절복통 고품격 코마다를 기대하라! 🎨

손유주 (공연기획부)

연극놀이터 해마루와 함께하는 '무대야 놀자'
달에서 떨어진 옥토끼



으아아아아아~쿵! 아이코 엉덩이야 ><

달에서 방아를 찧던 옥토끼가 그만 발을 헛디더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옥토끼는 무사히 달님에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옥토끼를 도와 달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아 보아요~

■ 프로그램 순서

로비집결 → 무대입장 → 무대장치 및 프로그램 설명 →
무대막 오픈(배우등장) → 페이스페인팅(사진촬영) →
무대승하강 체험 → 조명을 활용한 연극놀이 → 퇴장(기념품 증정)

■ 참가자격

참 가 자 격	무대에서 놀고 싶은 5-7세 어린이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참 가 비	1인 3,000원 (인술교사 및 학부모 무료)
문 의	031-481-4093

※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무대야 놀자'는 연극놀이터 해마루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함께하는 무대체험형 연극놀이입니다.
아이들은 즐거운 연극놀이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각종 무대 장치 및 극적 상황 등을 체험하게 됩니다.

2012 어버이날 기념 김영임의 소리 40주년 孝 대공연

공연정보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일 정	2012년 5월 26일(토)
시 간	(토) 오후 3시, 6시 30분
티켓 가격	VIP석 99,000 / R석 88,000 / S석 66,000 / A석 44,000
할 인	장애인(1-3급) 동반1인까지 30% 할인 장애인(4-6급) 본인만 30% 할인 국가유공자 본인만 30% 할인
문 의	1644-1702

[공연소개]

가정의 달 5월,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선물!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공연 1위!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소리.
2012년 소리인생 40주년을 맞은 국민명창 김영임의 노래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린다!
20여 년간 누적관객 100만!!
관객과 함께 울고 웃으며 수많은 추억과 기쁨을 남긴 '김영임 소리 孝 대공연'이 2012년 김영임 소리인생 40주년을 맞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췌시봉 그 후 45년 “조영남 콘서트”

공연정보

공 연 일	2012년 5월 18일(금) 오후 8시 1회 공연
공 연 시 간	120분
공 연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티켓 가격	VIP 99,000 / R 88,000 / S 77,000 / A 66,000
문 의	1688-6675

[공연소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전히
이웃집 피짜 아저씨 같은 그에게는 나이를 초월하는 뭔가가 있다.
노래를 시작한지 45년, 음반을 낸지 43년,
췌시봉 그 후 45년의 세월...
어릴적 오페라 가수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던 순진한 삼다리 청년을
지금의 초대형 가수로 만든 것은 1966년 췌시봉의 첫 무대였다.
시대의 종합예술인, 조영남
이번 공연은 가수 조영남이 췌시봉에서
노래를 시작한 이후의 45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여러분의 추억여행에 동행할 것이다.



2012 “컬투쇼”

공연정보	
일시	2012년 5월 11일(금) 8시/ 12일(토)4시,8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행복현대극장
티켓가격	VIP석 88000원, R석 77000원, S석 66000원 A석 55000원
할인	장애인(1-3급) 동반1인까지 50% 할인 장애인(4-6급) 본인만 50% 할인 20인이상 단체 (기획사문의)
문의	1644-3031

[공연소개]

2년만의 전국투어 왜?
2010년 '15주년기념 컬투쇼' 전국투어를 마치며 업그레이드된 컬투쇼를 만들기 위해 2011년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명분아래 3월부터~6월 80회 공연을 대략 소극장에서 펼쳤다.
“공연계의 레전드! 컬투쇼”
“컬투쇼”의 이름으로 공연한 이래 연간 예매율 1위를 단 한번도 놓치지 않은 진정한 공연계의 레전드.
컬투쇼 연인식, 특별 이벤트석으로 관객과 함께 하는 공연의 매력에 빠져보자. 여자들의 로망~ 프로포즈의 진리!
오픈하자마자 매진돼버리는 컬투쇼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연인식에 이어, 새로이 마련된 특별 이벤트석까지 관객과 함께라면 컬투쇼는 끝없이 발전한다.



윤희간 <피아노와 이빨>

공연정보	
일시	2012년 5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티켓가격	무료
문의	031-481-4000

[공연소개]

<피아노와 이빨>은 피아노공연으로는 처음으로 1,000회를 넘긴 유일한 공연이다. 2005년에 첫 무대를 올리고 단 7년 만에 1,000회를 돌파한 기적적인 콘서트이다. 연 평균 150회 공연, 피아니스트 윤희간은 피아노공연으로 장기공연을 시도했고, 피아노의 고정관념을 바꾸며 남녀노소 전 연령의 관객들을 공연장으로 이끌었다. 피아노와 이야기(이빨)를 조합시켜 재미에 감동을 더했으며, 수십만 관객들로 하여금 '감동적인 공연', '삶에 용기를 주는 공연'이라는 찬사를 얻었다. 윤희간은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은 피아니스트인데, 그런 그가 대중음악 공연사상 최초로 국립극장 무대에 서고,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을 했다. 이제는 피아노를 가지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교민들을 위해서, 세계오지의 아이들을 위해서 공연하고, 문화소의지역과 군부대투어 기부공연 등을 통해 다양한 나눔 활동도 펼치고 있다. 공연, 전시, 다큐멘터리, 책 등 피아노 하나로 수십 가지 꿈을 펼치고 있는 아름다운 도전의 상징 윤희간. 그는 <피아노와 이빨>을 통해 관객들이 삶의 소중한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 꿈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만의 길을 자신 있게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누구나 잘 하는 베토벤이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베토벤'을 연주하라고 말한다.



박상현 작품전 <커뮤니케이션>

물질이 가지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찰
동양적 서정성에 대한 아름다움 연구
전통 한지의 풀라쥬와 색과 선의 커뮤니케이션 연구

전시정보

기 간	2012. 4. 26 ~ 5. 3 (10:00~18:00)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3,4전시실
관 랑 료	무료
문 의	010-5253-3029



제9회 안산국제아트페어 AIAF

단원의 도시! 미술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안산에서
전국 유명작가의 작품초대전과 일본, 중국, 유럽, 미
국 등 해외작가의 현대미술 작품과 다양한 장르의
작품전시를 통해 대중과 호흡하며 현대미술의 흐름
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산 국제미술 봄 축제.

※장 르 : 서양화, 한국화, 조소, 공예, 사진, 판화 등
※작품수 : 약 2,000여 점

전시정보

기 간	2012. 5. 11 ~ 5. 23 (10:00~18:00)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1,2,3,4전시실
관 랑 료	무료
문 의	031-485-0488

제2회 대한민국 안중근의사서예대전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과 동양평화사
상을 서예를 통하여 국내외에 선양하고 안중근 의사
의거 103주년 및 안중근 공원 3주년을 기념하여 전국
서예공모대전 작품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자 함.

※장 르 : 서예, 문인화, 서각, 전각
※작품수 : 약 500여 점

전시정보

기 간	2012. 5. 26 ~ 5. 28 (10:00~18:00)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1,2,3,4전시실
관 랑 료	무료
문 의	011-297-3900

제11회 대한민국국제기호미술대전

우리의 찬란한 전통문예술의 계승과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며, 우리나라 전체 서단과 화단의 신선한
기품과 과감성 있는 개혁의 의지를 실천시켜 나가고
국제적 단체로 발돋움 하고자 함.

※장 르 : 서예, 문인화, 한국화, 민화, 서각, 전각,
도예, 공예, 등
※작품수 : 약 2,000~3,000여 점

전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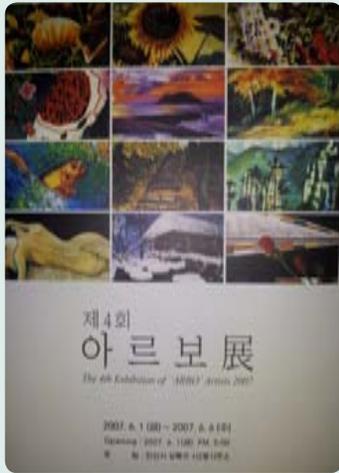
기 간	2012. 6. 1 ~ 6. 6 (10:00~18:00)
장 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1,2,3,4전시실
관 랑 료	무료
문 의	02-3272-9770



제9회 아르보전

순수미술단체 아르보 제9회 단체전

전시정보	
기간	2012. 6. 7 ~ 6. 11 (10:00~18: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3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10-5388-1161



안산민화협회 창립전시회

정통 민화의 예술적 가치와 대중성을 확대하고 회원 상호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산민화협회 주관 전통 민화 창립전시회

전시정보	
기간	2012. 6. 13 ~ 6. 19 (10:00~18: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1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31-414-8745

제42회 경기도공예품대전

우수 공예품의 발굴, 시상을 통하여 공예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우수 공예품에 대한 판로확보 및 공예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전을 위한 경기도 대표 공예품을 발굴, 선정하고자 함.

※장르: 목·칠, 도자 등 6개 분야

※작품수: 약 120여 점

전시정보	
기간	2012. 6. 28 ~ 7. 1 (10:00~17:00)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제3,4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31-8008-4632



루벤스, <파리스의 심판>, 1632-33, 런던내셔널갤러리
아테나, 아프로디테, 헤라 중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골라 황금사과를 건네야 하는 파리스의 모습은
난해한 선택에 직면한 인간의 모습을 대변한다.





그림 속 신화이야기II

루벤스의 <파리스의 심판>

순간의 선택이 불러온 비극, 만약 당신이라면?

인간은 매 순간 선택에 직면하며 삶을 살아가지만 정작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쉽게 낙관해 버리기 일쑤이다. 선거 열풍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한해, 중요한 선택에 직면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며 문득 떠오르는 신화 속 이야기가 있다. 바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된 '파리스의 심판' 일화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 목마의 극적 반전과 아킬레스, 헥토르와 같은 용맹한 장수들의 스토리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 전쟁이 원인이 된 신들의 알궂은 경쟁과 이에 휘말린 경솔한 한 인간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간과되곤 한다.

경쟁의 불씨가 된 에리스의 황금 사과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 지혜롭고 용맹했으나 아킬레스와 전투에서 사망한 헥토르와, 아킬레스의 발뒤꿈치를 활로 쏘아 쓰러뜨린 파리스가 그들이다. 파리스는 태어날 때 어머니 헤베카가 햇불이 도시 전체를 불태우는 꿈을 꾸었고, 이를 트로이의 멸망을 의미하는 불길한 전조라 여긴 그의 부모는 파리스를 궁에서 내보내 이테산의 양치기들의 손에 자라도록 하였다.

평범한 양치기로 살던 파리스가 운명의 격동에 휘말리게 된 것은, 바다의 여신 테테스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다. 신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는 분노한 나머지 "가장 아름다운 자에게"라고 쓰인 황금 사과를 연회석 한가운데로 던졌다. 아테네, 헤라, 아프로디테가 동시에 나서 사과의 주인임을 주장하자, 골치가 아파진 제우스는 그 심판을 인간인 파리스에게 맡겨 버린다. 심판자인 파리스 앞에 선 여신들은 저마다 그럴듯한 약속을 내놓았다. 전쟁과 지혜의 여신인 아테나는 전쟁에서의 승리와 지혜를,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세계의 주권과 명예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인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세 여신의 약속 앞에 고심하는 파리스의 모습. 이 순간을 루벤스를 비롯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의 주제로 삼았다. 1636년 루벤스가 그린 <파리스의 심판>은 세 여신 중 한 명에게 이제 막 황금 사과를 건네려는 파리스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반라의 세 여신의 모습을 담고 있다. 화면 가장 왼쪽에 방패와 투구를 배경으로 선 여인이 아테나이고, 아들 큐비트를 대동하고 나선 가운에의 여인이 아프로디테임을 알 수 있다. 공작새를 이끌고 나타난 오른쪽의 여인은 헤라이다. 여신들을 상징하는 각각의 지물로 누구 인지를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신화를 주제로 하는 그림 속에서 즐겨 사용되는 방식이다.

파리스의 뒤로 날개 달린 모자를 쓴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등장한다. 일설에 의하면 헤르메스가 심판을 수용하도록

파리스를 설득할 때 파리스는 여신들을 알몸으로 심사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한다. 착의 상태의 심사나, 알몸 심사냐를 두고 헤르메스와 파리스가 실랑이를 벌이는 내용이 루키아노스의 짧은 희곡 <신들의 대화>에 재치 넘치는 문장으로 수록되어 있다. 파리스의 고집이 관철된 덕분에 우리는 이 에피소드를 다루는 수많은 그림에서 여신들의 알몸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이 주제를 인류 최초의 미인 대회라고 묘사한다. 심판이라고 보다는 미인들을 심사하는 광경에 가깝다는 의미로 말이다.

파리스의 선택이 트로이의 멸망을 부른다

파리스는 결국 누구를 선택했을까. 루벤스의 그림을 보면 이미 파리스의 눈길과 손끝이 가운데 있는 아프로디테를 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최고의 미인을 약속한 아프로디테를 택하였고, 약속대로 당대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헬레네가 그에게 주어진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으로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도망친다.



다비드, <파리스와 헬레네의 사랑>, 1789, 루브르박물관
아프로디테의 약속대로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와 사랑에 빠진 파리스의 모습



그러나 헬레네는 이미 스파르타의 왕 메넬라오스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트로이 원정에 나서고 이로써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다. 물론 그리스인들이 전쟁에 나서도록 부추긴 것은 심판에서 패한 전쟁의 여신 아테네였다.

결국, 어머니의 꿈대로 파리스는 트로이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가져왔다. 물론 이 모든 상황을 파리스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테티스의 결혼식에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초대되었다라면, 혹은 제우스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스를 심판자로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트로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귀한 아들을 양치기목 키우고도 빗겨갈 수 없었던 비극적 운명. 그렇다면 그것은 신들의 장난에 말려든 인간의 불운 때문일까.

운명을 타하기에 앞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여신들의 선택을 앞두고 파리스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말이다. 루키아노스의 회곡에 따르면 파리스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듯하다. 알몸 심사를 고집했다는 부분에서 이미 파리스는 여신들의 외모에 상당히 치중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트로이의 멸망은 신들의 알곳은 각본 위에 인간의 오만과 경솔함이 더해져 완성된 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 매 순간 선택에 직면하는 우리의 운명을 타해야 할 것인가. 그보다는 어리석은 기준을 들이대고, 경솔한 선택을 낙관해 버리는 오만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 파리스의 일화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다. 🌈



게오르그 트하우트만, 〈불타는 트로이〉, 1759-63
파리스의 선택은 결국 조국 트로이에 멸망을 가져온다.

글쓰기 강은주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현재 동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다. 미술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와 전시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대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 있다.

Part 1 - '시선'과 '분위기'에 빠진다.

연극이 영화보다 재미있는 일곱가지 매력



연극인으로 산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동서고금을 무론 하고 배우들은 천민이나 하층 계급 취급을 받았으며, 일상적인 수모와 끼니를 잇기 힘든 가난을 안고 살아야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연극인들의 수입을 발표한 통계가 있었는데, 정규 4년제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대학로 등 현장에서 4~5년 정도 경력을 쌓은 30대 초반 배우의 연봉이 고작 600여만 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나마 TV나 영화 쪽에 진출한 배우들은 형편이 좀 나아 수 있겠으나 대다수 배우들의 삶은 예나 지금이 딱딱하기 이를 데 없다. 놀라운 점은 이렇듯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는 연극의 명맥이 종교나 정치권력에 의한 가혹한 외적인 탄압이나, 가난과 같은 내적인 억압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끊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로 한구석에 자리 잡은 연극의 막은 오르고 있으며, 비록 다수는 아니지만, 그런 연극을 보겠다고 기를 쓰고 찾아오는 소수의 열혈 관객들이 있다. 대체 무엇일까? 대체 연극에 어떤 숨겨진 매력이 있기에 삶의 곤궁함을 무릅쓰고, 또 환경의 불편을 무릅쓰고 수천, 수만 년의 세월 동안 그 질긴 생명력을 이어오게 하는 것일까? 자, 그럼 영화가 죽었다 깨도 따라오지 못하는 연극만의 중독적 매력, 그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자.

시선의 차이가 공감의 차이를 만든다.

흔히 우리의 삶을 가장 일상적인 시선으로 포착해 자연스레 전달해 주는 매체로 TV를 비롯한 영상매체를 손꼽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실상 영화의 시선은 나의 시선이 아닌, 감독이나 PD의 시선이며, 우리의 일상적 시선이 아닌 카메라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바라본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영화가 재미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세계를 거대한 스크린에 확대해 보여주거나, 반대로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거대한 자연이나 혹은 그 속에 있는 티끌만 한 크기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계적 시선으로서 영화만이 가능한 특별한 매력이요 즐거움이다. 이에 비해 연극은 지극히 일상적인 시선의 연장 선상에 위치해 있는 예술이다. 무대 위 배우와 그들이 펼쳐내는 사건은 관객이 극장 밖에 보아왔던 사람과 사물, 사건과 동일한 시선 앞에서 전개된다. 이렇듯 연극과 영화의 일상성과 비일상성, 날 것의 시선과 기계적 시선의 차이가 두 매체의 장점이 될 때 동시에 한계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실감 나는 장면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연극보다는 영화가 훨씬 사실적인 재현에 근접해 있다. 영화는 주먹이 나르고 턱이 밀려 돌아가며 피가 튀는, 정말 실감 나는 장면을 그대로 재현한다. 이런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따귀 한대 째는 실제로 때리고 맞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 촬영 현장이다. 만약 연극배우들이 이런 영화와 같은 실감 나는 장면을 관객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코끝을 스치는 거리까지 주먹이 날아드는 액션을 맹연습했다고 치자. 드디어 막이 오를 시간이 다가오고 많은 관객과 가족들까지 공연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 이윽고 액션 장면이 펼쳐지고 한껏 고조된 분위기에 흥분한 배우가 주먹을 휘두르는데 그만 거리 조절을 실패해 진짜로 상대 배우의 코를 때려 버렸다. 실제 코에서는 시뻘건 선혈이 흐르고 그날 공연은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이다. 배우의 코는 통통 부어올라 도저히 공연이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까닭에 연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감 나는 장면의 연출이 아니라, 배우들의 안전이다. 하루 공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몇 주, 몇 개월간 공연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영화의 경우 액션 장면이 아무리 실감나도 관객들이 객석에서 비명을 지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데 비해, 연극은 정교한 실감 나는 액션이 아님에도 배우들이 뒤엉켜 부딪기는 순간 객석 이곳저곳에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뭘까? 영화를 볼 때 관객들은 그것이 비일상적, 기계적 시선인 관계로 스크린 상의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즐기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에 비해 연극에서 나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인간으로서 배우가 바로 내 눈앞에서 맞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에 직면하고 또 쾌락을 느끼는 순간, 관객들은 그 무대 위 인물과 사건을 내 것으로 인식하며 공감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

사를 통해 영화를 보면서 폭동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연극을 보다가 분노한 농민이나 노동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영화가 결코 따라오지 못하는 연극의 강력한 공감대 형성의 영향을 엿보게 하는 사실이다.

살아있는 시, 공간을 즐긴다.

전통적으로 공간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사물의 '있음'으로부터 사고의 기초가 다져진 서양의 시각에 빈 공간은 그저 아무것도 없는 무의미한 공간일 뿐이다. 하지만 '없음'으로 보이는 세상이 실상은 '기(氣)'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동양적 시각에서 빈 공간은 보이지 않는 흐름으로 가득 차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영화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연극의 두 번째 매력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시, 공간의 생생한 분위기를 즐기는 데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동·서양 연극에 있어 하나의 신화가 되어버린 세계적인 이야기꾼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공교한 플롯, 극적인 반전과 인생에 대한 속 깊은 통찰력으로 이름난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영상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영화화되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영화들 가운데 연극보다 탁월한 수작으로 평가를 받은 작품을 찾기도 쉽지 않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셰익스피어 작품을 전개해 나가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 할 수 있는, 작품 속 시, 공간의 특유한 분위기를 영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햄릿>의 위대한 독백,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든가 고뇌 어린 대사를 살펴보자. 앞 장면에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형을 독살하고 형수를 아내로 삼은 악당 클로디어스는 미친 척하며 돌아다니는 햄릿의 진의를 파악하고자 재상 폴로니우스와 음모를 꾸민다. 햄릿의 어린 시절 친구들을 불러들여 마음을 떠본 후, 미치지 않았다면 제거해 버

리지는 것이다. 비열한 음모를 꾸미며 자리를 피하는 두 사람의 뒤로 잠시 무대는 텅 비어 버린다. 순간 무대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공간은 앞 장면의 비열한 음모의 기운으로 실상 가득 차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 비어 있으나, 실상은 사악한 음모의 기운이 가득 한 공간 속으로 햄릿이 고뇌에 찬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말한다. 이런 비열함과 역겨움을 참고 '사느냐' 아니면 정의를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싸우다 '죽느냐' 그것이 문제다. 한 마디로 햄릿의 유명한 독백에 생명력을 주는 열쇠는 앞 장면의 여운이 채 가지지 않은 공간의 '분위기'이다.

이에 비해 영화는 살아있는 시, 공간의 독특한 분위기를 스크린에 온전히 담아낼 수 없다. 만약 이를 느끼게 하기 위해 텅 빈 공간을 찍어 편집해 넣는다면 대개의 관객들은 영화가 멈춘 상영 사고로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 어차피 영화가 살릴 수 없는 '분위기'라면 과감하게 이를 포기하고 더욱 압축해 긴박감 넘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편이 셰익스피어의 의도에 부합하는 영화화라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대표적인 작품이 지난 96년 개봉한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로미오 + 줄리엣>이다. 결국, 연극을 즐긴다는 것은 숨가쁘게 전개되는 영상의 홍수에서 벗어나, 사건과 사건 사이에 틈입해 들어 온 교묘한 '침묵'을 음미하고, 그 여운이 자아내는 살아있는 시, 공간의 '분위기'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데 있는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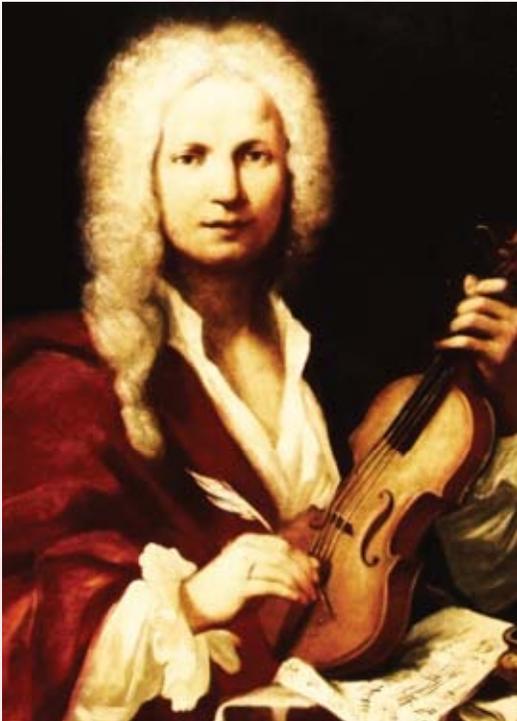
To be continued.

박준용 (연극평론가, 한양대 강사, adzero@empal.com)



Antonio (Lucio) Vivaldi

비발디의 약동하는 현악과 '버려진 아이들'



비발디는 어떻게 하여 그토록 찬연한 현의 선율들을
빛어낼 수 있었을까. 아,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봄
이면 봄마다 듣게 되는 현악합주곡 〈사계〉 말이다. 급류
를 거스르는 듯한 바이올린의 화려한 독주, 그것을 뒷받
침해주는 현악합주단의 풍성한 화음들. 비발디는 어떻게
하여 그토록 화사하고 농밀하며 지극히 자극적인 음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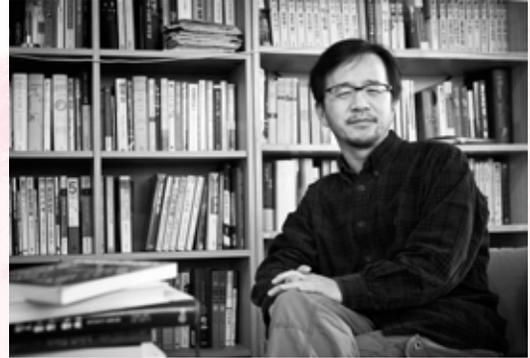
먼저 악기 제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초기 바로크 시대에는, 그러니까 쉬츠와 몬테베르
디 시대인 17세기 중엽 이전까지만 해도 악기 제조 기술이
걸음마 단계였다. 바이올린의 경우, 스트라디바리와 과
르니에리가 꼼꼼한 장인 정신과 비범한 감각으로 빛나는
악기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쉬츠와 몬테베르디가 세상
을 뜬 다음이었다. 현악이나 건반 악기 모두 비발디 시대
에 이르러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물론 오르간의 경
우 음량 조절장치(Swell-box)는 후기 바로크에 가서야 완
성되었다. 그렇다는 것은 바로크 시대 내내 오르간 연주
에 있어 섬세한 음량 조절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비발디가 활동하였다. 선배 작곡가들이 불충분한 악기로 최대한 표현해내고자 했던 기법들이 그에게 오롯이 전수되었고 때마침 악기의 장인들이 등장하여 특히 현악기의 대대적인 개량이 이뤄졌다. 비발디는 다채로운 화성의 변화와 그 바탕 위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는 독주 악기의 현란한 기교를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는 시대를 산 것이다. 이전 시대에는 금기시되었던 화려한 색채감과 순간적인 조 바꿈은 긴장과 탄성과 경이를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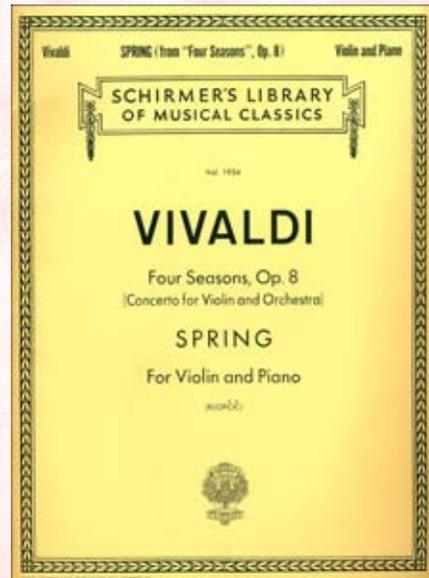
다음으로 교역과 축제의 도시 베네치아라는 특성도 살펴 봐야 한다. 베네치아는 16세기 이후 성행한 이탈리아 특유의 풍자 연극 '코메디아 델 아르테'의 중심지였다. 르네상스 때 시작되어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크게 유행한 '코메디아 델 아르테'는 가면을 쓴 전형적 인물들이 그때그때 상황(객석의 상황이나 당시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일정한 이야기를 변주하는 풍자극이다. 그중에서도 '아를레끼노-두 주인을 섬기는 하인'이 대표적인 작품인데 여기에 전형적인 인물 판탈로네가 등장하고 박사, 하인, 요리사 등이 뒤따른다. 이 전형적 인물 판탈로네가 무대에 입고 나온 의상이 아래 폭이 넓은 나팔바지인데, 이것이 훗날 '판탈롱'이 된다.

카를로 골도니는 이 풍자 연극의 대표적인 배우였다. 베네치아 출신으로 파도바대학에서 법학을 배웠으나 곧 연극으로 방향을 바꿔 1748년부터 베네치아의 '코메디아 델 아르테'를 선도했다. 그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능란하게 가면을 활용하거나 즉흥적인 대사로 당시의 사회 상황에 걸맞은 살아 있는 인간을 연기하였다.

베네치아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베네치아는 교역의 항구이며 축제의 도시였다. 18세기 베네치아는 새로운 음식과 옷과 유행어와 사생아가 태어나는 도시였다. 문화의 수도 베네치아 시민들은 혁신을 원했다. 카니발의 도시 베네치아는 시민 모두가 가면을 뒤집어쓴 배우이기도 했다. 18세기 베네치아는 1년의 절반 이상이 축제였다. 가을 축제는 10월 첫 번째 월요일에 시작하여 12월



정윤수 _ 음악칼럼리스트



15일에 끝이 났다. 그리고 열흘 정도 뒤 12월 26일부터 새로운 축제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봄 축제를 준비했다.

축제가 열리면 수많은 수로와 다리와 골목에는 시인과 곤돌라 사공과 허풍쟁이와 여행업자와 노름꾼과 광대와 시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청중이 되는 ‘카니발리즘’에 취했다. 축제와 일상이 그 많은 수로처럼 뒤엉킨 베네치아였으니 연극이 새롭지 않으면 안 되었고 음악 또한 혁신으로 질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로 비발디가 전성기를 보내던 무렵의 베네치아 풍경이다.



▲ 비발디가 '사계'를 작곡, 초연한 성당

여기 당대의 증언자가 있다. 비발디와 동시대를 산 꼴도 나는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18세기 베네치아를 묘사한다. “카페들은 온갖 부류의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찬다. 사람들은 광장이나 길거리에서 또는 운하에서 노래를 한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면서 노래를 하고, 노동자들은 일을 마치며 노래하고, 곤돌라 사공은 손님을 기다리며 노래한다. 이 나라의 기본적인 성격은 경쾌함이며, 베네치아 언어의 근본은 익살이다.” 바로 이러한 도시에서 음악가는, 권력자 한 사람만 바라보는 다른 도시와 달리,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을 향하여 활기찬 음악을 빚게 된다. 비발디가 바로 그런 행운의 사나이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비발디가 자선 구제원 ‘오스페달레 델라 피에타’의 부속 음악학교 교사로 재직했다는 점이다. 오스페달레는 버려진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구제원이다. 이탈리아 곳곳에 이같은 구제원들이 있었는데, 특히 베네치아는 그 수가 많았다. 이를 쾌락과 축제의 도시가 낳은 비극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어쨌거나 당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고 이에 대해 교황은 매우 직접적인 관심을 표하면서 그 아이들을 정성껏 기르는 것이 도시를 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남자아이들은 나폴리의 구제원에 보내졌고 여자아이들은 베네치아의 오스페달레에서 자랐다. 이 곳에서 여자아이들은 기초적인 수녀 교육을 배우는 한편 집중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았다. 이런 기관을 다른 말로 콘세르바토리오(conservatorio)라고도 하는데 이 단어는 오늘날 음악 실기 전문학교를 뜻한다.

이 구제원의 아이들이 음악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애뜻하게 보살핌을 받는 교육과정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전기 시설이 없었고 따라서 오디오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도시 행정의 대소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크고 작은 성당의 전례에서 음악은 늘 필요했다. 음악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왕성하였고 이를 충족시킬 연주자는 늘 모자랐다. 여자아이들은 1346년에 설립된 베네치아의 오스페달레 델라 피

에타에서 음악을 익혔고 남자아이들은 1589년에 설립된 나폴리의 콘세르바토리오 데이 포베리 디 제수 크리스토에서 같은 공부를 했다. 그리고 수련 기간이 끝나면 각종 공공 행사와 도시 축제, 시민 의식이나 성당의 전례에서 연주자로 활동했다.

여자아이들은 수녀처럼 생활하면서(어떤 점에서는 바깥 출입이 금지된 채) 혹독하게 수련을 받았다. 국가에서 일정한 관리 및 교육비가 지원되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지원비는 늘 모자라기 마련이었다. 하는 수 없이 유료 연주회를 통해 수입을 벌기도 했다. 장 자크 루소는 <참회록>에서 또 다른 구제원인 벤디칸티를 방문했을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를 슬프게 한 것은 그 저주스러운 창살이었다. 그것은 소리만 통과시킬 뿐 아름다운 찬사들을 내게 보여주지 않았다.(중략) 흠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나는 슬펐다. 간식 시간 중 누군가 그들을 칭찬했고, 그녀들은 즐거워했다. 추함은 우아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그들에게서 그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사람들은 이처럼 영혼 없이 노래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영혼을 갖고 있다.’ 결국 그들을 보는 내 눈이 바뀌어 그곳을 떠날 때 나는 추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비발디가 베네치아의 가엾은 어린 소녀들에게 음악을 가르친 것은, 그 자체로 소박한 아름다움이 있거니와, 음악사적으로는 상상하고 당당한, 실로 혁신적인 협주곡의 탄생을 가능케 한 것이었다. 그에게는 음악을 열심히 익히는 것만이 불우하게 시작된 자신의 삶을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체득한 어린 소녀들이 있었다. 비발디는 그 아이들을 오랫동안 가르칠 의무가 있었다. 비발디의 합주단은 유럽 최고 수준으로 발전했다. 비발디, 그 자신이 당대 최고의 연주자였다. 물과 축제와 사생아의 도시 베네치아 사람들은 비발디의 악동하는 선율에 환호성을 질렀다. 🌈



ANTONIO VIVALDI

정윤수 (음악칼럼니스트)

저서로 <클래식, 시대를 듣다>, <인공낙원 - 현대 도시문화와 삶에 관한 성찰> 등이 있다.

안산지역 도예가들의 모임

‘수암리 사람들’

흙에서 삶과 예술을 만나다!



흙이라는 소재가 갖는 무한한 가능성, 그 속에서 예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흙을 만지며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삶의 지혜를 배워갑니다. 안산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대 도예가들의 모임인 ‘수암리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도자예술이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리는 특별한 예술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도자예술의 대중화를 꿈꾸다

“어서 오세요. 찾기가 좀 힘들셨죠.”

환한 얼굴로 맞아주는 이분, 수암리 사람들의 창립 멤버이면서 현 회장인 김창섭 도예가이다. 수암리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이 그의 작업실이다.

금방이라도 봄비를 ‘와락’ 쏟아낼 것 같던 밖의 분위기와는 달리 작업실 내부는 열기로 가득했다. 10여 명의 사람들이 물레를 돌리고 흙을 주무르느라 분주히 움직인다.

수암리 사람들은 2004년 안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도예가 10인이 모여 창립한 도자 아트그룹이다. 도예가들의 친목과 정보교류, 그리고 도자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함이 목적이었다.

김창섭 회장의 설명이다. “수암리 사람들에 참여하는 도예가들은 대부분 현대도자를 하는 분들입니다. 비슷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면 정보 교환뿐만 아니라 도자예술의 대중화도 이끌 수 있을 것 같아서 창립을 하게 됐죠.”

창립 이후 수암리 사람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도자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도자기라는 테마를 통해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했고, 안산시가 추진하는 행사에서 도자체험 코너를 개설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도자기의 매력을 알렸다.

특히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회원전은 수암리 사람들이 주최하는 가장 큰 행사이다. 창립 첫째 2회의 회원전이 열린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0회의 회원전이 열렸다.

“정기 회원전은 회원들이 1년 동안 작업한 결과물을 전시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수암리 사람들의 가장 큰 행사입니다. 회원 개인의 자유 작품뿐만 아니라 공통 주제 작품도 출품하게 되는데 올해 공통 주제는 ‘화기(花器)’입니다. 전시회에 오셔서 작품들을 보시면 작가의 개성이나 작업 주제에 따라서 도가기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표현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문 도예가와 취미인들이 함께 활동

창립 이후 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암리 사람들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정식회원이 10명에서 36명으로 늘었고 작가들의 거점지역도 안산 인근으로 확대됐다. 회원들이 많다 보니 작가들이 추구하는 작품세계도 생활기부터 오브제까지 더 다양해졌다.



전문 도예가 중심의 초기 모임과 달리, 도예를 업이 아닌 취미로 하는 일반인 회원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일반인들에게 도예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당초의 목표가 조금씩 현실화되는 듯하다.

김창섭 회장은 “전문 도예가들이 작업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취미인들의 회원가입이 늘기 시작했다.”며 “취미인들도 매년 회원전에 참가하는데, 전문 도예가들과는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을 통해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예를 배우고 싶은 안산 인근 지역 사람들이면 누구나 수암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듣는 동안 궁금해졌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특히 취미인 회원들이 느끼는 도예와 수암리 사람들의 매력은 무엇일까.

도자기를 배운지 2년 정도 됐다는 박병현 회원은 “아직 많이 배우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도예의 매력은 흙이라는 무에서 도자기라는 유를 창조할 때 느끼는 희열감”이라고 말했다. 또 백명주 회원은 “도예의 매력은 중년이 되면서 찾아오는 공허함을 없애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라고 거들었다.

배우면 배울수록 도예의 매력에 더 빠지고 있다는 이현미 회원은 “수암리 사람들의 장점은 전문 도예가분들과 취미인들이 함께 회원으로 있는 것”이라며 “올해로 3번째 회원전에 참여하는데 전문 도예가들의 지도 덕분에 한결 수월하게 전시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 것 같다”고 했다.

창립 10년, 새로운 도약을 꿈꾸다

내년이면 수암리 사람들이 창립된 지 10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회원들 간의 정보교류와 도예의 대중화라는 부분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래서 수암리 사람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당장 내년에 있을 정기 회원전을 좀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안산에서만 진행되던 정기 회원전을 서울과 안산으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전시 내용도 더 풍부하게 구성한다.

김창섭 회장의 설명이다. “내년에는 회원전을 인사동과 안산으로 나누어 두 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암리 사람들 회원이었다가 이리저리한 이유로 떠나셨거나 3년 동안 전시회에 참석하지 못해 자동으로 회원 자격이 정지된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분들도 모두 초청할 생각이구요.”

뜨거운 가마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 탄생되는 도자기는 소박하면서 화려하고, 단순하면서 웅장하다.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물끄러미 바라만 봐도 만든 이의 숨결이 느껴진다.

수암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도자기를 닦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나 도자기와 친해질 수 있는 예술을 꿈꾼다는 그들, 소박하면서도 단순하지만 화려하고 웅장하다. 🌈

이충우(프리랜서)





강서고등학교 '여울' 연극동아리



2004년, 안산 강서고등학교의 작은 계발활동 부서로 시작한 연극 동아리, '여울' 창단 이후 각종 청소년 연극제에 참가하여 화려한 수상실적을 쌓아올렸으며 2010년에는 '5.18 전국 청소년 연극제'에 참가하여 전국의 수많은 연극 동아리를 제치고 대상 수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여울'을 처음 만드시고 지금까지 지도교사로 계시는 박석민 선생님을 만났다.

'여울'의 의미

선생님을 만나기 전 가장 먼저 묻고 싶었던 것이 바로 동아리 이름이었는데, '여울'은 유년기 지형에 나타나는 작은 폭포를 말한다 고 한다. 그런데 유년기 지형은 변화가 별로 없지만 거기서 크게 꺾이거나 물의 깊이가 깊어지는 등 약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학교와 집을 왔다갔다 하는 생활이 큰 굴곡 없이 지나가는 물처럼 단조롭게 보였단다. 그래서 학생들이 연극을 통해서 단조로운 삶에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로 전해지게 되는, 그런 의미로 여울이라고 지었다.

화학 교사와 연극부 지도 교사

나의 선입견이었지만 화학 선생님과 연극반 선생님, 언뜻 생각해 보면 잘 연결은 안 된다. 왠지 교지, 도서관 등이 그러하듯 연극반 선생님은 인문 교과 선생님이 맡으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연극

을 지도하는 것과 담당하고 있는 과목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아주 뛰어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고 잘했던 것 두 가지를 학교에서 다 하고 계실 뿐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셨다. 화학 교사와 연극부 지도교사를 연결 못 한 건, 정말 나의 선입견일 뿐이었다. 좋아하는 걸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연극을 시작 하게 된 계기

그럼, 선생님은 언제부터 연극을 좋아했을까? 선생님께서는 처음 연극을 접해 본 것은 교회에서였단다. 선생님을 지도해주었던 청년부 형이 연극 쪽으로는 전문가여서 그때 제대로 배워보셨다고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다른 학교 축제들을 많이 다녀보셨고, 학교마다 축제 때가 되면 학예회 같은 연극을 선보이는데 그때 선생님과 함께 교회에서 연극을 했던 친구가 연출한 연극, "리투아니아"를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연극을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셔도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 아니 어쩌면 아마추어보다 더 미숙한 학생들을 데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연극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물론 지금은 연극준비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분야별 전문가를 모셔와 개인 지도도 하고 지원도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들이 연습시간을 내는 것조차도 힘들 것이다. “40일 동안 매일 세 시간씩 쉬지 않고 연습하는 것. 학생들이 50분짜리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데 까지 걸리는 최소한의 연습시간이에요.” 선생님의 이 말씀만 들어도 입시공부를 하면서 연극을 한다는 것은 열정 없이는 어려울 듯싶다. 물론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학교생활의 의욕을 찾고, 헤매고 있던 미래를 꿈꾸고, 적성을 발견하고 연극배우가 되는 학생들도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겠지만, 학생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야 하니까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선생님께서도 학생들이 툴툴툴 공부하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많이 힘들다고 하셨다. 또 학생들이 연극부를 하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단다. 그런데 학생 대부분이 연극반 활동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연극 연습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경험이 된다고 믿고 계셨다. 학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어쩌면 3달 동안 연극 준비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고 학생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다고 하셨다. 작품 한 편이 인생의 한 단면의 축소판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애착 가는 공연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올려지는 작품들. 하지만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선생님께서 잊지 못할 작품은 어떤 것이었을까? 조금은 예상했지만 역시 선생님께서 뽑으신 작품은 첫 번째 공연이었다. “대학 동아리나 다른 단체에서 연극을 하다가 처음으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연극을 하게 된 작품이에요. 연극부를 처음 만들 때 연극을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계발활동 부서니까 연극의 이론적인 수업과 연기를 가르쳐 주는 목적으로 창단하게 되었는데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연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여름방학에 ‘연극을 해보자’ 결심을 했죠.” 이렇게 시작한 연극 동아리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단다. 제작비도 없었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고 같이 연극을 해본 경험도 없었고. 뭐 하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어 물어 연극을 진행하게 되셨다고 한다. 그렇게 무대에 올린 첫 작품은 ‘여덟 명의 여인들’이라는 작품인데, 사실이 작품을 올리게 된 이유도 그 당시의 여자 배우가 8명이었기 때문에 배우에 맞는 작품이어서 선택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각본도 비디오자막을 일일이 따와서 쓰고 의상이고 뭐고 배우들끼리 손수 하나하나 준비해서 올린 작품이었다니, 어찌 남다른 애정이 있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힘든 과정을 통해 올림픽 기념관을 하루 대관해서 2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본교 1학년 학생들이 거의 다 와서 봤었고 모두들 재미있어하며 반응이 좋았다고 한다. 그때의 짜릿한 경험을 잊을 수 없다고 하셨다. 아마 공연에 참여했던 연극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여러 수상실적 중 뜻깊은 상이 있다면

2010년에 ‘선생님?? 선생님~~’이라는 창작극으로 ‘5.18 청소년 연극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때가 가장 인상적인 수상이었다고 한다. 연극의 내용은 주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꾸며진 작품인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속에 담긴 메시지와 이 작품에서 드러난

자기주장, 저항적 태도가 잘 녹아져 대상까지 수상하지 않았나 하셨다. 특히 이 작품은 학생들이 돌려 써가면서 만들어낸 공동창작 작품인데,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니버스 형식의 작품이었다. 첫 번째 일화는 80년대의 독재적인 선생님 밑에서 자율 학습을 하게 되는 아이들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일화는 90년대에 동아리 활동이 자유롭게 못했던 것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고, 마지막으로는 무관심 속에서 사고로 죽게 된 장애인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썼단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셨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이야기에 살을 덧붙여가는 형식으로 대본 제작 작업을 했었다고 한다. “저의 자서전이라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이 학생들의 공동창작으로 만들어진 거죠.” 선생님과 학생들이 작품으로 교감하고 소통하고 그 속에서 나온 작품이라면 어떤 관객, 심사위원들에게도 진정성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과학체험학습을 연극으로 - 과학과 연극의 융합 "산소"에 대해

내가 본 여울의 작품은 작년에 안산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한 '산소'였는데, 지금까지 연극을 많이 본 건 아니긴 하지만, 지금까지 봤던 작품들과는 남달랐다. 교실에서만 만나던 과학적 지식을 연극으로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신선했다. '산소'는 선생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두 영역을 합쳐놓은 연극이었다. 과학을 소재로 한 연극은 선생님도 처음 시도해 보신 것이었는데, '산소'라는 작품은 과학연극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 중 하나라고 하셨다. 이 작품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는 대개 과학연극을 연극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제작을 하다 보니, 아무래

도 작품의 깊은 이해는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화학을 지도하는 선생님으로서 한번은 해 보고 싶었다. 실제로 3년 전에 '산소'를 연기했던 배우들을 만나보셨는데, 이 분들이 연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한다. 연극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려면 각 장면에 담겨진 내용이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표현해야 하는데, 이해하기가 힘들니까 제대로 된 연극을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가 만든 과학연극'. 그게 바로 여울이 만든 '산소'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연극의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이 작품의 원작자는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인 '로알드 호프만'이라는 화학자인데, 이분의 제자 중 한 명인 이덕환 교수(대한화학회장)님이 이 작품을 번역하셨고, 그 교수의 제자인 선생님께서 이 작품을 연극으로 제작했으며, 선생님의 제자인 강서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배우와 스태프로 무대에 선 것, 다시 말해 화학으로 연결된 스승과 제자들이 만든 연극이라는 점에서 선생님께 매우 특별한 작품이었던 것이다. “멋있지 않아요?”라고 하셨던 선생님의 웃음 섞인 말씀은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작품은

'여울'은 현재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올해 '견우와 직녀'라는 짝막한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에 무대에 올린 '산소'는 교과서적인 내용 때문에 관객이나 배우가 무대에서 자유롭게 또 재밌게 즐기지 못했던 점이 아쉬워서 올해는 청소년의 이성 교제를 주제로 한 작품으로 조금 더 자유롭게 무대를 꾸며나가려고 재미있는 연극을 만들고 계신다고 하셨다. 여울의 도전 정신은 여울의 작품을 기다리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청소년 연극부와 연극의 방향

청소년들이 주체 혹은 대상이 되는 문화공연이 얼마나 될까? 요즘 어린이들이 즐길 만한 공연은 많아져 문화적 혜택은 부족 많아진 것 같다. 하지만 아직 중·고등학생들이 누릴 만한 문화적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듯싶다. 선생님께서도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과 혜택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하셨다. 그래도 그나마 안산예술의전당처럼 공연할 무대나 청소년들을 배려한 공연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청소년연극에 쓸 대본을 고르기 위해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청소년층을 주 관객으로 써진 대본은 거의 존재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청소년연극 또한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청소년들의 생각과 모습을 담은 연극 대본들이 많이 써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연극도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가 연극으로 펼쳐진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청소년들도 미래의 문화 관계자며, 문화관객이라는 것을 어른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 저의 여울이 있기에...”

선생님에게 ‘여울이란?’. 나의 마지막 인터뷰 질문이었다. 선생님은 여울은 선생님이 안산 강서고등학교에 있는 이유라고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다.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고 안산 강서고등학교를 택했었던 이유도 학생들과 연극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까지도 다른 곳에 고

개를 돌리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하셨다. “여기에 저의 여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학생들을 데리고 연극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저는 그다음 날 바로 사표를 낼 거예요. 학교에 남아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이지요. 여울은 제게 그런 존재예요.” 수업시간도 열정적인 선생님의 연극부가 이 정도까지의 의미인줄은 사실 몰랐다. 연극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 “우리들에게 선생님은 연기 선생님이지사 무대감독, 연출가 등 모든 면에서 도움을 주시는 만능엔터테이너이세요. 박석민 선생님은 여울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직접 느끼는 저희는 선생님을 보면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겠죠? 여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여울의 중심이십니다.”라고 했던 말이 다시금 생각이 났다.

선생님과 인터뷰하면서 선생님께서는 여울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것에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으로 학생들과 소통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줄곧 들었다. 그리고 여울은 그렇게 소통된 작품으로 다시 청소년들과 공감하고 또는 어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실력에 더해 열정과 끈기로 노력하는 여울은 어른들의 연극 모방이 아닌 청소년 연극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

최지현 (안산 강서고등학교 2학년)

안산아트 뉴스

ANSAN ART NEWS

대동서적과의 교류협력사업 실시 - 반뽕갤러리 운영

지역복합문화예술기관인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안산의 대표서점인 안산대동서적간의 교류협력사업이 실시되었다. 2011년 말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재단장을 한 안산대동서적 중앙점의 내부공간 한편에 조그마한 갤러리를 설치한 것이 그 첫 번째 협력 사업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가지고 있는 미술 소장품들과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들로 전시공간을 꾸민 <반뽕 갤러리>가 서적 한켠에 마련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술 분위기가 살아있는 서점으로 변모하였다.

이번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안산 지역에 또 하나의 전시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주제별, 장르별로 큐레이팅을 하면서 공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첫 번째 전시는 <기억속의 공간>전을 진행하였는데 이 전시는 '2011 한국현대미술작가 100인 초대전'을 통해 기증받은 100점의 작품들 중에서 안산문예당 교육전시부에서 큐레이팅한 전시회였으며, 앞으로 판화, 사진, 한국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지역 작가들에게도 공간을 적극 개방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시로는 사진작가 김용권님의 <자작나무숲 시리즈>가 5월 말까지 일정으로 열리고 있다.

반뽕 갤러리 공간에는 미술작품 이외에 고객들의 예술정보 습득 편의를 위해 안산문예당의 화보집, 소식지, 리플

렛, 문화나눔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포스터를 게시하고 있으며 안산문예당의 예정 공연에 대한 영상물을 고객들이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춰 놓았다. 향후에는 이 장소에서 대동서적 도서판매와 연계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공연출연진과의 만남 행사나 사인회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식 페이스북 오픈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공식 기업 페이스북(www.facebook.com/artansan)을 오픈하고 관객들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기업 계정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관객들에게 공연정보와 사진 등 공연 전반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풍부하게 전달할 매체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것이다.

기존의 홈페이지는 일방적인 공연 소개와 정보전달이 주목적이었다면 페이스북에서는 관객에게 공연의 뒷이야기와 함께 공연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 또한 관객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여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페이스북 공식 오픈 이벤트를 통해 5월에 공연예정인 연극 <궁리>와 연극 <춘천거기>에 공연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면 공연 티켓을 선물로 주는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많은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 선정단체 발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2012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공모지원사업>의 심사를 마치고 선정단체를 발표하였다.

본 사업은 우리동네에서 문화예술단체가 협력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예술프로젝트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속에서 예술적 공감대를 확장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경기문화재단 지원금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한 이번 사업에서는 33개 사업에 대하여 신청을 접수하여 2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지원사업은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신진예술인 및 아마추어 예술활동의 영역확대와 지역문화예술의 활력있는 활동에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으며 특히 두 장르 이상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예술단체 협력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하였다.

이는 아마추어 예술동호회와 전문예술단체가 동네와 마을에서 생활 속 예술을 진작시켜 주민들의 예술적 욕구를 향상시키며,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여 예술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끌어내는 것이 지역사회 예술발전의 기본 토대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은 “조선조 실학이 영글고 조선조 문예부흥의 본산이었던 안산에서 21세기형 커뮤니티 아트가 새롭게 꽃피우길 기원하며 안산의 문예단체들의 도약을 기원한다”며 선정단체들에게 당부하였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에 <극단 몸꼴> 선정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2012년도 <공연장 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이 신청한 <극단 몸꼴>이 선정되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수준 높은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해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여르미오페스티벌, 예술캠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극단 몸꼴>은 몸을 화두로 삼아 배우들의 몸짓을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하는 단체로 크고 작은 실내 공연과 야외 퍼포먼스, 예술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그들만의 예술세계를 확립하고 있는 단체로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데 적합한 단체로 평가를 받아왔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극단 몸꼴은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동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상주단체의 개념을 실내 공연부터 예술교육, 야외 공연에 이르기까지 사업범위를 대폭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관신청안내

▶ 대관문의/신청

■ 공연동 및 기타시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대관담당자 앞
 TEL 031-481-4027 FAX 031-481-4021

■ 전시동 내 기타시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교육전시부 대관담당자 앞
 TEL 031-481-4095 FAX 031-481-4094

■ 공연장

시설명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야외공연장
규모	1,368석(아동극1,060석)	686석	142석(가변식)	1,000명 수용

■ 전시관

시설명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규모	368.13㎡	361.85㎡	361.78㎡	360㎡

■ 국제회의장 : 181석(회의석 112석 방청석 69석)



아름다운 만남

나눔미

2012년 5월 현재

총 165,453,6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복회원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쉼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1대학,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박수연,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연써커뮤니케이션스 안산시청 경제정책과,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셋방기획, 김중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바리스커피,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땀따라',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시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PMC프로덕션,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안산예당아트샵,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 참여방법

문의 : 031-481-4046(문화나눔미 담당자)

전당홈페이지 : www.ansanart.com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161-01-086553

(재)안산문화예술의전당 문화나눔미

■ 회원구분 및 예우

구분	기부금액	회원예우
나눔회원 (개인)	1만원 이상	1. 기부금영수증발급 2. 무료공연 우선초청
보람회원 (개인/단체)	10만원 이상	3. 기획공연 프로그램복증정 4. 전당소식지 '하늘다리' 우송
행복회원 (개인/단체)	100만원 이상	5. 정당기념품 증정(보람, 행복회원)

- 회원자격은 1년간 유지됩니다.

- 기부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 예) 직장동료, 모교후배 등